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31호

Thursday, July 3 2025 A

“대선 민주당 편만 들었다”

CBS에 소송 건 트럼프 1600만달러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했으며 벌인 소송이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16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향후 건립될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 측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directly or indirectly)”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CBS 측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크리스티 농·연방국토안보부 장관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은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인터뷰를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100억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인 올해 2월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억달러로 늘리기도 했다.

CBS는 이에 맞서 수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거액의 합의

금 지급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CBS 내부에도 후폭풍을 남겼다. CBS뉴스의 CEO였던 웬디 맥마흔과 ‘60분’ 수석 프로듀서였던 빌 오언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합의는 파라마운트가 84억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 인수합병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해준 기자

민주평통 인선철 다가왔지만 ‘조용’

제22기 9월 출범 어려울듯 워싱턴 회장 물밑경쟁 치열

한국의 6월 대선으로 인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협의회를 비롯한 민주평통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5월 대선을 치르고 6월 평통위원 희망자 접수와 추천위원회 구성, 8월 회장, 간사, 자문위원 발표를 하고 9월 출범을 한 것이 제17대부터 관례로 이어져왔다. 이전에는 3월이나 4월에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3일 조기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다시 한번 평통위원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2기 워싱턴평통 참가 희망자 모집은 이달 말이나 8월 초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덩달아 출

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2일 현재까지 제22기 구성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으며 답답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워싱턴협의회는 내달 17일 제21기 종무식 개최를 할 예정이어서 이후 제22기 출범 때까지는 민주평통 공백 상태가 된다.

워싱턴협의회 차기 회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는 바람에 한인사회에서는 벌써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인 제21기에는 회장 자리를 놓고 약 12명이 경쟁을 벌였다.

제21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약 10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2기는 12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환 기자

“전승절 참석 여부 소통 중” 중국 벌써 “환영”

중국인 오는 9월 이른바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대통령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오는 9월 이른바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대통령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은 벌써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다만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토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중국의 초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인데,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전례와 대대대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에 들어갔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자유주의 진영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협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채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금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한층 심해지는 등 정부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FBI 본부 워싱턴 DC에 잔류

MD 그린벨트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연방수사국(FBI) 본부의 메릴랜드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워싱턴 DC의 새로운 건물로 옮겨간다.

연방조달청(GSA)은 “FBI 본부 건물을 워싱턴DC의 에드거 후버 빌딩에서 몇 블럭 떨어진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최근 해체 수준에 직면한 연방해외개발지원국(USAID)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연

방상무부 등이 입주해 있었다. GSA는 새로운 입지가 세금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GSA는 “FBI 현재 본부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돼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기에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존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3억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경우 수십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FBI 이전 계획은 2010년부터 시작

됐으나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GSA는 2023년 최종적으로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그린벨트 입지를 선정했으나, 이번에 다시 번복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워싱턴DC 잔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워싱턴 지역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소송을 불사하기도 했다. FBI는 본부 건물을 이전하려도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워싱턴DC 바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욱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풀변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티아넵틴’ 사고 끊이지 않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올초부터 우울증 치료제 티아넵틴(tianeptine)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오남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티아넵틴은 ‘게스 스테이션 헤로인’으로 불리는 인기 높은 길거리 마약 중 하나다.

연방 식품의약품(FDA)이 최근 티아넵틴의 심각한 위험과 과다복용 및 사망 관련 위험성을 경고하며, 치료 목적을 포함해 티아넵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티아넵틴의 중독성을 경고하며 사용금지 법률을 제정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돼 문제가 심각하다.

FDA는 티아넵틴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들이 이를 우울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버지니아 제약위원회는 1월부터 의회 입법에 따라 티아넵틴을 스케줄 1 마약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작년말까지만 하더라도 게스 스테이션 카운터에서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을 정도로 널리 퍼진 값싼 마약으로, 시중에서는 헤로인과 유사한 환각효과를 낸다는 소문 탓에 급속히 퍼진 상태다.

시중 판매가 금지된 후에도 온라인과 길거리 마약상에 의한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FDA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당국은 티아넵틴이 미국에서 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에서 불법적으로 마케팅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는 “온라인에서, 심지어 게스 스테이션 등에서 쉽게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물로 착각하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비승인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회사들은 티아넵틴이 뇌 기능을 개선하고 불안, 우울증, 통증,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티아넵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환각 등이 발생하며, 복용 중단을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티아넵틴을 펜타닐 등을 포함한 혼합 조제 약물과 복용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티아넵틴 오남용시 불안, 졸음, 혼란, 발한, 빠른 심장박동, 고혈압, 메스꺼움, 구토, 호흡 저하 또는 정지, 혼수 상태 등의 부작용 끝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VA 공화 주지사 후보, 상대방에 “사회주의적”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선 윈섬 얼-시어즈(공화) 부지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베네티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 민주당 후보인 예비 게이 스펠베르거 전 연방하원의원을 향해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했다.

얼-시어즈 후보는 뉴욕 시장 후보로 나선 조란 마만디 후보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내 고향 뉴욕에서 사회주의자를 후보로 지명했다”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상대방의 생각은 사회주의적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는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돈을 사용해 친정을 베풀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영역 도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찰관의 사후처리 면책권을 지지했다.

그는 또한 마만디 후보의 시정부 직영 슈퍼마켓 법안을 거론하며 “모든 것을 무료로 퍼주면 결국 우리 모두는 파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바 병원 헌단에 클리닉 개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비영리의료법인 이노바병원이 헌단에 새로운 클리닉(365 Herndon Parkway, Suite 105)을 오픈했다.

이 클리닉은 가정의학, 모자 보건, HIV 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노바 병원은 레스톤에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별도의 목적으로 이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노바 병원은 프랭크onia-스프링필드에 초대형 병원을 건설 중이다. 이 병원은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다.

VA 우주왕복선 텍사스로 옮겨갈 수도

최근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버지니아의 우주왕복선 이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스미스니언 우드바-헤이즈 향

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텍사스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 8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김욱재 기자

“대학 순위 조작” 학생 집단소송

컬럼비아대, 122억 합의 굴욕

언론사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대학 순위를 부풀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대가 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9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컬럼비아대는 잘못 매겨진 대학 순위에 기반해 낸 등록금이 과다하다며 집단소

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합의금 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컬럼비아대에 재학한 학부생 약 2만2000명은 합의금에서 각자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컬럼비아대가 매년 미국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 언론사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측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순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지혜 기자

2125년엔 ‘700만 대한민국’ 지금 서울 인구보다 적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100년 뒤 국내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이달 중 출간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통 50년 후까지 예측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50년을 더해 총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해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대부분 국가의 공식 인구 추계에 활용된다.

연구원은 출산율 변수를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대로 반영하고, 이후엔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명(고위)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가정했다. 통계청은 2049년부터 2072년까지 출산율이 1.08명 수준일 것으로 본다.

추계 결과, 2125년 한국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 명)의 14.6%인 753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1370만 명)보다 적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573만 명에 그쳐 현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인구는 2075년까지 30% 줄고,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사람이 줄고, 그다음 세대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75년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넓은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

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 교수는 “이런 급격한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시나리오별 고령 인구가 부양비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65명을 부양해야 한다.

중위와 고위 시나리오에선 2080년 각각 100명이 노인 133명, 108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한 것이다.

현재는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30명을 부양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부양 부담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부양비가 정점을 찍은 이후엔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월급에서 노인 1명을 위해 1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00년 후에는 30만~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채혜선 기자

워싱턴 날씨 (°F)

4일(금)	88-65	7일(월)	89-73
5일(토)	89-67	8일(화)	89-72
6일(일)	90-72	9일(수)	88-71

7월 3일(목) 90-6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해시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비엔나 새집 지을 땅 \$87만불

H-Mart에서 가까운 곳 0.24 에이커 부영이 남향인집 워아웃 베이스먼트 나오는 집

그로서리

스페니쉬 마켓 할 자리 알렉산드리아, 2000sf

식당 자리

센터빌 햄버거식당 자리 1928 SF

알렉산드리아 스사식당 자리 3814 SF

메릴랜드 락빌 고깃집 자리 6,195 SF

메릴랜드 락빌 스시, 이자카야 자리 4,675 SF

매 매

VA 스틸링, 창고 2,000 SF, 드라이빙인, \$660,000

창고 VA 센들리, 21,000 SF, 주차 45대 나눠서 임대가능, \$ 5,600,000

MD 게이더스버그 교회자리 대략100석 주차 65대, \$ 1,500,000

MD 컬럼비아 사무실건물 7,700 SF, \$ 2,175,000

임 대

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막 1개, 월\$6,500

MD 락빌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

Reston 오피스 빌딩

\$7,500,000

- 건물면적: 38,510 스퀘어피트
- 대지 면적: 약 37에이커
- 알렉산드리아 인근, 레스턴 타운센터 및 알렉산드리아까지 차로 10분 이내
- 기업 본사 또는 프라이빗 스토를 적합
- 총 주차 공간: 138대 (3.7/1,000 SF 비율) - 직원용 주차 또는 야외 놀이 공간 조성 가능
- 건물 전체: 3층
- 구성: 사무실, 회의실, 개방형 공간 혼합
- 대형 카페테리아 및 휴게 공간, 피트니스 센터, 총 6개의 키친, 야외 피크닉 공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 - 자연 채광과 숲 전망 제공, 개방형 이태리온 계단 + 고속 엘리베이터
- 매매가 기준 평당 단가: \$194.75/sf (신축 비용 대비 낮은 가격)
- 경제성: 매월 시 임대 대비 비용 절감 효과 35% 이상
- 활용성: 직접 사용 가능
-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향후 성장 여유 확보

종교시설 매매

\$4,500,000

- 위치: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 대지 면적: 약 9에이커
- 건물 면적: 총 약 18,423 SF (2개 동, 2단계 건축)
- 주차 공간: 98대 (장애인 지정 포함)
- 매각 조건: 현재 상태 "As-is" 매각

· 용도지역: R-200 (주거지역, 예배시설은 기본 허용)

· 세공: 종교 비과세 적용, 물환경 및 폐기물세 포함

· 비품 일부 포함, 전체 "As-is" 매각 조건

이 매물은 예배당, 커뮤니티 센터, 교육기관(학교), 문화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넓은 확장성, 넉넉한 주차 공간, 상업용 주방, 다목적 공간 구조로 매우 실용적인 매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Woodbridge 상업용 부동산

\$3,950,000

- 용도: 데이케어 / 사립학교용 건물 \$3,950,000 (평당 \$483,48)
- 연면적: 약 8,170 SF
- 준공연도: 2012년
- 총 층수: 1층
- 총 주차 공간: 40대
- 장애인 접근성: 메인 레벨 출입 가능, 낮은 목실 거울 등 설치

주택 구입우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택 빌더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컨설팅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주목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ingwashington.com

승경호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재미과기협,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

노벨상 수상자가 기조연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류재현)와 한국과총(KOFST, 회장 이태식), 한국연구재단/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NRF/KUSCO 이사장 홍원화)가 공동 주관하는 2025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5)가 8월 5-9일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열린다. KSEA 류재현 회장(University of Idaho 교수)과 윤용규 차기 회장(University of Florida 교수), 김류화 제1 부회장(Wissda Senior Manager), 김성희 제2 부회장(University of Georgia 교수) 등 신입 회장단을 비롯한 신규 임원들은 최근 버지니아 비엔나에서 이취임식 후 54대 회장단 출정식을 갖고 UKC 2025행사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UKC 2025 개최식에는 2009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Jack W. Szostak 시카고 대학 교수가 '생명의 기원과 첫 번째 세포의 본질'에 대해 강연한다. 올해 54주년을 맞이하는 KSEA는 1971년 워싱턴 DC에서 69명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창설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등록회원 3만명, 활동회원 8,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한미 간 과학기술교류를 위해 매년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와 연중 미주 지역별 학술대회, 차세대 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사업에 주력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포함 전국 심장병 사망률 감소

스탠포드대 연구진 발표 1970-2022년 추세 '조사'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전역에서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미심장협회 학술지(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심장병 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심부전, 고혈압성, 부정맥을 포함한 다른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사라 J. 킹 박사와 동료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가 생명통계시스템 역학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25세 이상 성인의 장기적인 심장병 추세를 면밀히 조사·검토한 자료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연구진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 조정 심장 질환 사망률이 66%(10만 명당 761명에서 25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1970년에는 전체 심장 질환 사망자의 91%가 허혈성 질환이었으나, 2022년에는 53%로 절반 정도 줄었다. 또 이 기간 동안 연령 조정 사망률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89%,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 81% 감소했다.

반면, 다른 심장 질환 유형의 연령 조정 사망률은 82% 증가했으며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 질환, 부정맥(각각 146%, 106%, 450% 증가)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킹 박사는 "지난 50년 간의 이러한 발전은 심장마비와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관리 방식에 있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하지만 심부전과 부정맥을 포함한 다른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문제는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싸움만 하는 양당... 합의 지점에 무료 출산 법안

밴스 부통령도 지지

연방의회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출산 무료 법안(HMBA)이 추진되고 있다. 상원 법안을 상정할 팀 케인 의원(민주, VA)은 "J.D. 밴스(공화) 부통령도 상원 의원 시절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현재 상원의회 의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과 이 법안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공화당의 신디 하이드-스미스(미시시피) 의원, 조시 호레이(미주리) 의원, 민주당

의 키르스텐 길리브랜드(뉴욕)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 시 자기 부담 의료비용은 3천달러에 이른다. 건강보험 없이 출산할 경우 평균 4만달러가 넘게 든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 중 건강보험사가 출산비용을 전액 커버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만이라도 수정통과되길 희망했다. 현재 출산비용을 모두 커버하는 보험은 저소득층 공격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유일하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얻고 출산하는 아기가

미국 전체의 41%에 이른다. 하이드-스미스 의원은 "직접적인 출산 비용 외에도 간접적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많은데, 병원 비용 때문에 많은 빛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부모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이 법안이 좌파와 우파,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를 통합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페어팩스로턴 구 교도소 개발 계속

로턴 교도소는 원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안해 1910년 완공한 연방 교도소다. 2001년 시설 노후화로 문을 닫았는데, 2002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2324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420만 달러에 매입했다. 2008년 민간업체에 매각된 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리노베이션을 거쳐 165개 아파트로 개조됐다. 이 곳의 월 렌트비는 1372달러에서 2700달러 사이다. 20세기 초 건설된 교도소는 건축학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자연 채광과 환

기를 제공하는 창문이 많아 아파트 개조가 쉬웠다. 교도소 식당은 당구대 등이 설치된 클럽 하우스로 바뀌었고, 교도소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경됐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 요가실, 수영장, 놀이터 두 곳과 소매점 및 레스토랑도 입점했다. 개발업체 측은 교도소 발전소 등의 아파트를 추가 건설하고 몇몇 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레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초과 지급 소셜연금 회수 시작

7월부터 약 200만 명의 연금 수령자에게 많게는 수령액의 50%가 삭감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SSA)이 이달부터 과 지급 또는 오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용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이다. SSA 측은 그동안 장애연금(SSDI)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중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

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정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회수해왔다. SSA 측은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월 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해 왔으나,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200만 명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엔 환수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를 다시 10%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100%를 추진했고,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에게 "수급 조건 변경 시 SSA에 즉시 신고하고, 수급액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핫라인 / 휴대전화 앱 이용하세요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민자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휴대전화 앱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2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3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4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5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6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7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8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1.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2.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3.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4.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5.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6.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7.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8.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99.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100. 30일 안에 출국하시지 않으면 75%의 벌금 부과

귀하의 권리알기
이민세관단속국인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경우:
• 이 카드를 경찰관에게 건네고 복사권을 행사하세요
• 이 카드는 귀하가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1.844.500.3222 Live confidential assistance (Available in English and Korean)

휴대폰 앱
안드로이드(갤럭시) 앱 스토어(KYR 4 Immigrants)
아이폰 앱 스토어(Know Your Rights 4 Immigrant)
• 단속을 맞았을 때 해야 할 말
•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기능
• 미리 알아야 할 이민자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 핫라인
1.844.500.3222
• 한국어/영어, 24시간 운영
• 철저한 비밀 보장
• 이민자 단속을 맞게 됐을 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손흥민 LA 오나... 한인 축구팬 '들썩'

업계 소식통 "LAFC와 협상중" 영국 매체도 "손, 미국행 선호"

LA가 손흥민의 다음 연고지로 급부상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 간판 공격수 손흥민(사진)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A를 연고로 하는 LAFC가 유력한 이적팀으로 거명되면서, 한인사회는 벌써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제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본지에 "손흥민이 MLS

진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LA FC와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보도된 대로 사우디 프로리그 이적 제안이 있었지만, 손흥수는 고액 연봉보다 삶의 질과 생활 환경을 더 중시한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LA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LA 이적에 대해 돈을 걸어도 좋을 단계"라고도 했다.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 북미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볼런던'은 지난달 30일 "손흥민이 사우디 구단들의 지속적인 구애를 받고 있지만, MLS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보



도했다. 스포츠 베팅 전문지 '포스트'는 "북미 리그 특유 스타일이 손흥민과 잘 맞을 수 있다"며 과거 웨인 루니, 메시, 앙리의 사례를 언급했다.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전 토트넘 감독이 LAFC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 오른 점도 이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토트넘 주장으로 기용하며 깊은 신뢰감을 보인 바 있다.

LAFC 선수진은 손흥민에게 낯설지 않다. 현 골키퍼는 토트넘 시절 함께 뛰 프랑스 국가대표 위고 요리스다. 전 토트넘 스타 개러스 베일도 이 팀에서 은퇴 직전까지 활약했다.

이적설에 대해 LA 한인사회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축구 팬은 "손흥민을 직접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이라며 "그가 오면 한인 사회 전체가 하나 되어 뜨겁게 환영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LAFC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영입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레딧에는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가 우리 팀 유니폼을 입는다면 말 그대로 꿈만 같다", "박찬호·류현진이 다저스에 왔을 때처럼 LA 한인사회에 큰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

의료 혜택 등 대폭 축소, 저소득층 직격탄

BBB 상원 통과 반응 시니어·소수계 특히 타격 한인 단체들도 대책 부심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법안(BBB) 하원 통과를 앞두고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도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불안한 전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일부에서도 소수 반대 의견이 분출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하원 통과 저지를 우선 목표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BBB가 통과된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티리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차기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티리스는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랜트 폴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예산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메디케어 예산 1조 달러 삭감

에 대해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빚을 짓고,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소수계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들이 속한 지역구의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1일 오후 온라인 모임을 통해 BBB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하원 감사위원회 소속인 데이브 민 의원(47지구·민주)은 이 모임에서 "이번 감세안은 저소득층에게 돌아질 수 없는 치명상을 남길 것"이라며 "공화당에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방 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남가주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축소 재고를 요구하는 지역 시위도 지속된다.

OC 주민들과 전국간호사노조는 2일 오후 1시 영 김 의원(40지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산안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간호사 노조 측은 "이번 삭감은 수

백만 명의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들의 생명선인 메디케이드를 위협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여러 보건 의료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역구 사무실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인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BBB 법안이 현실에 반영될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조건들로 인해 혼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 서명 직후 이를 설명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이민자 영어 교육 등 차질 우려

연방 정부 지원금 보류 "기금 목적 외 사용 우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교육 보조금 보류 방침을 밝혀 이민자 자녀 교육 지원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방 정부 측은 지난달 30일 주 정부들에 대한 68억 달러 규모의 교육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류된 기금에는 가주에 할당된 8억 1100만 달러의 기금도 포함돼 있다.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보낸 서한

에는 "이번 회계연도를 앞두고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지원 중단은 검토 중인 프로그램에는 영어 학습자 지원, 이주 노동자 자녀를 위한 학습 장애 극복 지원, 애프터 스쿨 보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방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보조금을 불체자 옹호 단체 및 법률 지원 서비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채 기자

UC계 모두 학기제 도입 추진 전환 영향 보고서 이달 발표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이 모든 캠퍼스의 학사 일정을 학기제(semester)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UC버클리나 머시드를 제외한 UCLA와 같은 다른 학교들은 4학기제(이하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기제로 전환 시 UC 전체 캠퍼스가 동일한 학사 일정을 갖게 돼 수업 및 행정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UC는 지난 해부터 팀을 구성해 학기제 전환 시 학생 성취도, 재정 비용, 등록, 수업 일정 재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이 팀은 이달 중 보고서를 발표한 뒤, 오는 가을에는 총장과 교수회 의장, 학사계획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학기제로 전환될 경우, UC 전체 캠퍼스가 동일한 학사 일정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공동 프로그램 운영, 교수진 배정, 수업 등록, 여름 인턴십 및 취업 준비 등이 더 수월해진다.

이와 함께, 학기제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UC 데이비스의 정주인 교수는 "대부분 교과서는 15~20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쿼터제 수업에서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여러 챕터를 한 주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학생들은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 정보 과잉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UC 측은 교과과정 개편, 행정 운영, IT 시스템 전환 등에 2억8800만~3억71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내 쿼터제 운영 대학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약 150곳에서 50곳으로 줄었다.

정윤재 기자

배스 LA시장 "연방정부 압박에 맞서겠다"

트럼프, '피난처 도시' LA 소송 배스, "이민자 보호 지속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연방 법원에 제소하자 캐런 배스 LA 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LA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 LA시가 연방 이민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자 증가 및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등 기존에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도시들에 대한 소송과 유사한 연장 선상에서 제기됐다.

배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LA는 이민자의 도시이며, 수십 년 동안 범죄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적 전통을 지켜왔다"며 "연방정부의 법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시 공무원 및 경찰은 불체 단속을 위해 시 자원을 사용하거나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최인성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상호관세 연장 고려 안해...일본에 30~35% 부과할수도”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둬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를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스소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

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는 무역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의 후임자 후보로 2~3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인터넷 신분증 도입하는 중국...“11억명, 온라인 검열 강화하나?”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역할을 하는 별도의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게 골자다.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중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온라인 검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게 인터넷 신분증 도입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위한 방탄 조끼”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가령 개인이 인터넷 신분증으로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와 앱 목록, 댓글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분증 제도는 만리방화벽이 진화한 형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집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 구매는 금지돼 있지만,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에 해커가 상하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0억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하지만 중국의 검열 시스템 때문에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희 기자**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는 11억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보급률은 78%다.

앞서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분증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이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인터넷 신분증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면 인식, 휴대폰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으로 각종 웹사이트와 앱 접속은 물론 댓글도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신분증은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지만, 곧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중국의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거대한 도박’에 빗대며 “중국 정부가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의 AI 기술을 한 단계 더

상원, 감세법에서 ‘AI 규제 유예’ 삭제...“아동안전 중요”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술 기업들의 요구에도 미 의회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중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이민 조치로 논란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다른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과됐다. 감세안에 반대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사 블레이크 상원의원(테네시)은 이 조항이 아동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법과 담페이크를 막기 위한 테네시주의 ‘엘비스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시됐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달 12일 AI 개발 업체에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경영자(CEO), 브랜드 스미스 마이크 로소프트 부회장,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등은 직접 청문회에 나서 AI 규제가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사이버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유예 조항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을 비롯해 아동 단체들도 AI 규제 유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AI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장윤서 기자**

1일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AI 규제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주로 감세와

이중 ‘AI 모라토리엄(지급 유예)’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10년간 규제를 유예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치는 ‘보트 어라마(vote-arama)’ 절차에서 유예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99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

이 조항은 미국에서 AI를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며 IT 기업들의 불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역소) 몰
웨이브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홍콩 항공사, 일본 소도시 2곳 운항 안한다

“대지진설 영향”

홍콩 그레이터베이항공이 9월 1일부터 홍콩과 일본 소도시 2곳을 각각 잇는 정기 노선 운항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레이터베이항공은 홍콩과 돗토리현 요나고, 도쿠시마현 도쿠시마를 연결하는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 이 항공사는 홍콩에서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해 탑승객이 급감했고 실적이 악화해 해당 노선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사는 앞서 홍콩과 도쿠시마, 센다이

를 잇는 항공편을 일부 감편한 바 있다. 교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 피해로 운항이 중단돼 유감스럽다”며 “운항 재개는 수요 회복 상황을 보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대지진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 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주요 국가·지역 중 홍콩만 유일하게 5월 일본 방문

자가 줄었다. 일본에서도 최근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지진설과 관련된 보도도 증가했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기상청과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대지진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지진은 현대 과학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확률이 80% 정도로 알려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 연관성에 대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내 기자



2024년 1월 규모 7.6 지진이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준다더니...

“비축량 부족하다” 못 주겠다고 미국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미사일과 탄약의 선적을 중단했다. 미국의 자체 무기 비축량이 너무 줄었다는 명목상 이유를 대면서다.

백악관은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발표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검토한 결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선적이 중단된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155mm 포탄,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스텔스 미사일, AIM-7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등이다.

지원 중단된 무기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무기들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방부에서 포탄, 방공미사일, 정밀 탄약의 총비축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배경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강조했다.

지원 중단 결정 역시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했다고 한다. 콜비 차관은 중국 압박을 최우선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가진 자원을 중국 견제에 투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론을 평소 밝힌 인물이다.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를 묶어두는 한편,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 복귀시켜 정상국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중국 견제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원래 G8이었던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라고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에 들어간 이후 전선 유지에 버거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러시아 드론이 많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장비들이 진지 사 이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 두 나라 정상은 2022년 9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지도 입장을 굳히면서 러시아와 정상간 대화를 그만뒀기 때문이다.

이번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차 표명했고,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현실 영토에 기반한 평화 협정을 강조했다. 양측 정부는 각각 밝혔다. 박현준 기자

CNN “북, 러에 최대 3만명 추가파병 준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문건 입수 보도 가능성 매우 크다”며 “북한군이 대규모 공세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병력 수송을 위해 개조된 정황도 있다. 제니 타운 스티븐슨 연구원은 “3만 명은 생각해볼 수 있는 숫자”라면서도 “1만~2만 명 정도의 파병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앞서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군이 대규모 공세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병력 수송을 위해 개조된 정황도 있다. 제니 타운 스티븐슨 연구원은 “3만 명은 생각해볼 수 있는 숫자”라면서도 “1만~2만 명 정도의 파병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앞서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여할

“내여친 13명, 신용카드 많은 새남친 찾아라”

옥중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대규모 초법적 살상을 지시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80) 전 필리핀 대통령이 13명 이상으로 알려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가 많은 다른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말했다고 그의 장남인 파올로 두테르테 상원의원이 전했다. 파올로 의원은 아버지의 본거지이자 자기 지역구인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1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CC 소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수감 생활 중인 아버지가 너무 말랐지만 정신은 또렷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히틀러 찬양’ 노래 발표에...미국 유명 래퍼 비자 취소한 호주

호주 정부가 최근 히틀러 찬양 노래를 발표해 물의를 빚은 미국 유명 래퍼 카네이 웨스트(예·Ye)의 비자를 취소했다.

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웨스트가 지난 5월 나치즘 찬양 노래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를 발표한 뒤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웨스트는 아내 비

앙카 센소리의 고향인 호주 멜버른을 수년간 자주 찾았다고 한다.

버크 장관은 호주 공영 ABC방송에서 웨스트 비자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검토한 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치즘을 조장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각한 편견을 일부러 수입하지 않아도 이 나라에는 문제가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한 지 80주년인 지난 5월 8일 하일 히틀러 싱글을 공개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는 “나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나는 나치다”와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 노래가 자신의 문제를 자극적으로 표

현한 일종의 비유법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제목을 ‘할렐루야’로 바꿨다. 또 엑스에서 “더 이상의 반(反)유대주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웨스트는 오는 26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예 라이브 인 코리아’(YE LIVE IN KOREA) 공연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김지혜 기자

아동부 및 한글학교 담당 한어권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Part-Time)

지원 자격

1. 어린이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으신 분
2. 복음주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3. 영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신학교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4. 안수증명서(목사일 경우)

* 사례: 면접시 결정합니다.
* 문의 및 서류 제출: iseung17@gmail.com

페어팩스 한인교회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www.fairfaxchurch.org 703-352-0855, 703-691-4309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이력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LY 3RD - JULY 10TH, 2025

 **ITO EN**

JAPAN'S NO.1 GREEN TEA BRAND

ITO EN
Oi Ocha Green Tea
 이토엔 오이 오차 녹차



\$6.99 ← ~~REG. \$14.99~~
 16.9 FL OZ X 6 BTLS/PKG **LIMIT 2**

 **ROYAL UMBRELLA**

ROYAL UMBRELLA
Thai Jasmine Rice
 로얄 엄브렐라 타이 자스민쌀



\$19.99 ← ~~REG. \$26.99~~
 25 LB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건희 출국금지, 한덕수 소환

김건희특검, 16개의혹 수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신분 소환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경위 조사

2일 현판식을 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 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했는데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되자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았다.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건진법사 금품수수, 양평고속도로 비리 등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각종 사건 관련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에 위치한 내란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경찰에서 이뤄진 출국금지는 수사가

관이 변경될 때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전 총리가 출국금지된 상태임을 알렸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11명)를 채운 박석재 전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 여부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일에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의 소집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사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는 이날 '계엄선포문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일일 답하지 않았다.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포함,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공범인지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이뤄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계엄 선포 직전 국

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강익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서 한 전 총리가 선포문 문건에 서명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하면서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명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을 선포한 이후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관측은

가라고 말하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체 필요성 등을 살핀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진술 내용에 따라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소집'을 각 국무위원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검찰 출신이다.

오는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나은혜·석경민·이찬규 기자**

북 '평양 무인기 침투' 발표시기 드론사 무인기 2대 사라졌다

내란특검, 국방부 감사자료 확보
작년 10월15일·12월19일 소실
사유 '원인미상' ... 특검, 조사 예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소실됐다는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조사 보고서에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

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했다. 드론 소실 시점은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뼈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가깝다. 부총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군 현역 장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는 드론사 소형 정찰 드론 총 8대가 고장 나거나 소실됐다고 조사했다. 이 중 6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2대는 고장, 지난해 1월, 6월, 10월 3대는 파손, 11월 7일 난기류에 추락한 무인기는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5일, 12월 19일 2대만 잃어버려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도 '원인 미상'으로 적었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부 의원은 "북한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정상 분실된 것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가 부실한 이유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평양에서 '추락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지난 1월 22일 동일 기종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드론사 4개 예하 부대 중 백령도는 북한이 추락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인데도 직접 방문해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받은 사진으

로 조사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배편 예약이 꼭 차서 방문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용대 사령관에게서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반응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드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보름 기자**

심우정 후임에 박세현·이정현·구자현·주영환 거론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속도
심우정 "검찰 필수역할 폐지 말아야"

심우정(사진) 검찰총장이 2일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재임 9개월만에 중도 퇴임하면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

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이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후보로는 박세현(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 이정현(57·27기)·구자현(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박세현 고검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수사 및 기소를 주도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한영익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은 하이, 프로스틴미들 2025 새싱글 \$1,450,000</p> <p>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5. 애넌데일 싱글 \$749,000</p> <p>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화 3, 키포치 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4주차, 화중 2,312sqft, 0.46acre, SOLD 45.5, 통치세 보다 50%이상 저렴, 리노베이션/투어 가차널룸, 399/236/169/195/166</p>	<p>10. 센터빌 벅틀타운 \$639,000</p> <p>방 3, 화 2.5, 차고 1, Himart인근, 29/Braddock/28.66 Coming Soon</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p> <p>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p>	<p>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p> <p>방 3, 화 2.5, 차고 1, 좋은학교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1/95/234 Coming Soon</p>	<p>11. 게인스빌 콘도 \$425,000</p> <p>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p>
<p>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p> <p>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p>	<p>7. 사우스라이딩 터운 \$645,000</p> <p>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p>	<p>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p> <p>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719,000</p> <p>1베이크룸,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수영장, 천연 욕조, 분수, 데크, 풀바, 수영장 등)</p>	<p>8. 애쉬번 터운 \$670,000</p> <p>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풀바스 공항 Coming Soon</p>	<p>13. 찬들리 새터운 렌트 \$3,600</p> <p>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Rented</p>
<p>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p>	<p>14. 매매/리스</p> <p>*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월</p>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8/02~08/15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마강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마강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마강	7박 8일	\$2190(부타~/인사이드) \$2590(부타~/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490+항공 부타~/인사이드
11/11~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3박 14일	\$3980+항공
11/14~11/24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490+항공
1/21~2/2/26	신비의 인도&네팔	12박 13일	\$4590+항공
01/27~02/06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11~02/22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02/19~03/0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 9/27~9/30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 동경
 3박 4일 | 10/25~10/28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크루즈
 11박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타~/오션뷰 발코니요금문의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6차 10/28~11/07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1/8~11/13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일본 연립 투어
 2인 이상 출발보장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 \$1899+항공
 11/08~11/13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리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
 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
 김포/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제) 20% off 남 \$720/여 \$770

현대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천심/몽뜨랑블링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7/3~7/6 \$899

독립 기념일 특선 레치위스/나이아가 워킹스글렌 2박 3일 7/4~7/6 \$699

노아 +아미시마켓당일 \$199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케백/플레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찌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 투어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미동부 워싱턴 지역 토박이 한인마켓! 롯데플라자마켓

LOTTE market PLAZA

Happy 4th of JULY SPECIAL SALE

THU 3 FRI 4 SAT 5 SUN 6 MON 7 TUE 8 WED 9 THU 10

• VA & MD Weekly Sale: Jul. 3 Thur - Jul. 10 Thu, 2025
 *실버스트림과 런던 매장은 본 세일 광고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www.lotteplaza.com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주간 세일 및 이벤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4th of July Special

- 빨간 체리 (점보) Red Cherry (Jumbo) 249 LB
- 금사라기 참외 Korean Melon (10 LB) 1599 BOX
- 샴페인 망고 (14과) Champagne Yellow Mango (14's) 999 BOX
- 한국오이 Korean Cucumber 249 LB
- 열무 Baby Radish 099
- 옥수수 Sweet Corn 3 for 099
- 켄트 망고 (8과) Kent Mango (8's) 599 BOX
- 씨없는 수박 Seedless Watermelon (Jumbo) 499 EA
- 검은자두 Black Plum 099 LB
- 선골드 골드 키위 Sengold Golden Kiwi 2499 BOX
- 백도/백천도 White Peach / White Nectarine 199 LB
- 도넛 복숭아 Donut Peach 299 PK
- 대파 Giant Green Onion 199 BN
- 한국호박 Korean Round Squash 199 LB
- 석류 Pomegranate 299 LB
- 흰홍과 White Dragon Fruit 199 LB
- 로켓사과 Rocket Apple 899 PK
- 람부란 Rambutan 199 LB
- 작프루트 Jackfruit 099 LB
- 한국산 새송이버섯 Korean King Oyster Mushroom 199 PK
- 햇 마늘종 Garlic Stem 299 LB
- 씨없는 오이 Seedless Cucumber 100
- 시금치 Bunch Spinach 099 BN

4th of July Special

- 6인분 불닭 볶음면 6-Pop Buldak Ramen (Cheese / Original / 2X Hot / Carbo) 899
- 사계절쌈장 Seasoned Soybean Paste 399
- 도미노 설탕 Domino Sugar 399
- 소금 (플레인/요오드) Salt (Plain / Iodized) 179
- 파스타소스 Ranchera Pasta Sauce 199
- 진한 참깨 드레싱/마늘이 들어간 양파 드레싱 Deep Roasted Sesame Dressing / Onion Dressing With Garlic 399
- 반도둑 간장게장/양념게장 & 간장게장 Soy Sauce Marinated Raw Crab / Spicy & Soy Sauce Raw Crab 2299
- 다일리 요리 가라아게치킨 Day Lee Foods 가라아게치킨 Karaage Chicken 599
- 유기농 두부 (블리드/무블리드/저지방/생식용) Organic Tofu (Ex-Firm / Firm / M-Firm / Soft) 2 for 300
- 대형 생 주부초밥 Fried Soybean Curd 499
- 통가맛김치 Tongga Kimchi (Spicy Napa Cabbage) 999
- 순살 떡국 떡/떡볶이 떡 Rice Cake (Spicy Tteok / Stick Type) 499
- 시천도시락김 Seasoned Seaweed 499
- 해물류 초사리미역 Dried Seaweed (Myeok) Gift 1299
- 키토산 누룽지 Chitosan Nurungi 599
- 파파코/돼지바 Papago (Choco Ice Tube) / Crispy Crunch Ice Bar 599
- 우유 드링크 Flavored Milk (Taro / Haha / Mango / Coffee / Banana / Strawberry) 599
- 삼육 콩국 Soy Soup Drink 2 for 400
- 생 배 갈아만든 주스 Pear Drink With Pulp 699
- 오리온 카스타드 Orion Custard Cake 449
- 알고불/수봉/미니국화빵 (단말/수크림) Mini Bun (Selected Varieties) 399
- 삼미 마메이드수 (화이트/초코) White Choux / Choco Choux 299
- 영양 쌀떡 (홍미/흑미/백미/참깨) Rice Cake (Selected Varieties) 599
- 프리미엄 국보쌀 Premium Medium Grain Rice 1199
- 오징어튀김 스틱 Fried Calamari Snack 699
- 포키 (다양한 맛) Pocky (Selected Varieties) 2 for 300
- 새우칩 Shrimp Chip 399
- 젤리 새우칩 Jelly (Selected Varieties) 2 for 300
- 엔젤 헤어 라즈베리 화이트 초콜릿 Angel Hair Raspberry White Chocolate 999

POULTRY & MEAT LOW PRICE AND BEST MEAT PROMISED IN THE 365 DAYS

4th of July BBQ Special

- 양념 LA갈비 Marinated Beef Sliced Short Ribs (LA Style) 1299 LB
- 돼지속살모듬구이 (삼겹살, 목살, 항정살) Pork Steak Combo (Belly, Ct Butt, Jowls) 699 LB
- 훈제오리구이 Smoked Sliced Duck 2299 LB
- 앵거스 프리미엄 구리스로스트 Angus Prime Beef Chuck Tender Roast 999 LB
- 냉동 앵거스 프리미엄 대패부채살 Frozen Prime Beef Chuck Top Blade Paper-Thin 1599 LB
- 양념 벌집삼겹살 Marinated Pork Tenderized Single Ribbed Belly 599 LB
- 닭가슴살 Chicken Boneless Breast 399 LB
- 무항생제 목초우 동심스테이크 Grass Fed Beef Ribeye Steak 1399 EA

FRESH SEAFOOD YOU WILL FEEL THE SCENT OF THE SEA IN THE 365 DAYS

4th of July HOT Special

- 살아있는 바다가재 Live Lobster 1999 LB
- 프리미엄 연어스테이크 Patagonia Premium Salmon Steak 799 LB
- 스노우 크랩 Snow Crab Leg 1699 LB
- 냉동 오징어 Frozen Squid 399 LB
- 대합 조개(구이용) Chowder Clam 199 LB
- 머리새우 Shrimp (Head On, 30-40) 499 LB
- 냉동 갑오징어 Frozen Cuttle Fish 699 LB
- 탈피피라 필렛 Tilapia Fillet 499 LB

특가세일 SUPER SPECIAL SALE

- 천하일미 CJ Medium Grain Rice (Chun Ha Il Mi) 2699
- 프리미엄 국보쌀 Premium Medium Grain Rice 1199
- 배아미 Bae Ah Mi 1499
- 원미원 CJ Bae Ah Mi 1499
- 헬리코박터 프로벡트 (오리지널/저지방) Probiotics Yogurt (Original / Low Fat) 2 for 500

HOUSEWARE - HOME SWEET HOME MAKE YOUR LIFE EASIER & STYLISH AT LOTTE PLAZA MARKET

- 홍삼원 Korean Red Ginseng Drink 6999
- 전기 밥솥 Rice Cooker With Warmer 11499
- 3층 정사라 그리드판 3Py Stainless Steel Grid Pan 3499
- 냉장고 탈취제 (복지/향신) Refrigerator Deodorizer (Green Tea / Charcoal) 500
- 과탄산수다 Percarbonate 799
- 가스 스토브 Gas Stove 1799
- 부탄가스 Butane Gas 399

‘탄핵 소신’ 안철수 “코마상태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안 “보수 오염시킨 고름·종양 적출”
전당대회 출마엔 “생각하지 않아”
당내 “통합 앞장선 계 발탁에 영향”
혁신위원은 7~9명, 두 달간 운영

국민의힘이 12·3 계엄 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을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양을 적출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 위원장의 삼고초려 끝에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최근 안 의원의 지역구를 두 차례 찾은 송 위원장은 “안 의원이 나한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줬는데, 적임자는 당신뿐”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안 의원 발탁을 두고 당내에선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의 통합에 앞장섰던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의원은 윤 정부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고 순직 해병 특검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당론과 다른 소신을 폈다. 12·3 계엄 직후엔 ‘탄핵 반대’ 당론에도 1차 탄핵안 표결부터 찬성표를 던졌고, 일관되게 찬탄(탄핵 찬성)과 윤 전 대통령의 사과 및 탈당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구원(舊怨)이 깊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나 단일화를 설득하며 범보수 빅텐트에 앞장서자 당내에선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내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Coma·혼수상태) 상태로 악성 종양이 빼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지만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송언석 위원장을 만나 혁신위 운영 방향과 혁신위원

인선을 논의했다. 두 달가량 운영될 혁신위원은 7~9인으로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이르면 3일 혁신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혁신위가 가까스로 출발 궤도에 올랐지만, 혁신안이 당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혁신안은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2024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당시 대표를 비롯한 전운계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스스로 해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혁신안 관철을 위해 “최소한 60일의 혁신위 활동 기간이 필요하다.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어 안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새 당 대표가 혁신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새 지도부도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왼쪽)이 2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안 의원은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중국청년 AI 창업 몰릴때, 한국은 ‘생계형 창업’

(배달전문 식당 등)

청년창업 가뭄-실패 리스크

“한번만 실패해도 수천만원 빚
재창업·취업 도움 지원 절실”

중국인 왕진(30)씨는 “최근 딥시크처럼 성공한 사례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인공지능(AI) 창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입사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겠지만 경험일 뿐, 평생직장은 아니다. 최종 꿈은 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청년들이 AI 창업에 몰리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청년들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일 중앙일보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미·일·중 4개국 2030세대 청년 각 500여 명씩 총 2103명을 대상으로 ‘청년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을 시도해본 적 있는 한국 청년은 10명 중 1명(12.2%)에 불과했다. 미국(35.1%), 중국(29.4%), 일본

(16.4%)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 청년이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패 리스크 부담’(34.9%), ‘안정적인 직장 선호’(34%), ‘자금 조달의 어려움’(18.2%) 등을 꼽았다.

한국 청년은 창업하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내수 시장에 집중했다. 외식·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일반 서비스업(35.2%) 창업에 가장 관심이 컸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업이 각각 26.9%, 29.1%로 1위였고, 중국은 AI 등 정보기술(IT) 기반 산업(35.1%)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엔 투자를 받기 위해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경험 적은 청년들이 단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며 내수 시장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AI가 화장품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을 창업했던 30대 한국인 A씨는 약 1년 만인 최근에 폐업했다. A씨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너무 컸다”며 “외주를 쥘

서 개발하려 했더니 수역원이 들어 불가능했고, 베트남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했는데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실증이 가능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데모 버전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리니 버티기 힘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벤처투자 시장을 키워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청년 창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 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가운데 30세 미만 창업기업은 12.9% 줄어들어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이 경직되면서 수익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이템보다 금방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가 환영받는 추세”라고 말했다.

생계형 창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감소세다. **최선우·나상현·김수민 기자**

대기업의 벤처투자액, 1년만에 53% 줄었다

한국청년 창업 활성화 필수조건

대기업 등 민간자본 유입이 핵심
“미 금리 오르면서, 신규투자 축소”
대기업의 벤처설립 규제완화해야

한국 청년들의 도전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민간 자본의 유입이 핵심이다.

정부가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해외 벤처캐피탈(VC) 등의 모험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규제 완화와 글로벌 자본 유인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민간 비영리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액은 총 1조 9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줄었다. 특히 대기업 CVC 투자액은 2023년 6475억원에서 지난해 3056억원으로 52.8% 급감했다. 투자 활황기였던 2022년(1조7502억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스타트업 트렌드가 플랫폼·이커머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잃었다”며 “이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고, 대기업들도 기존 투자 관리에만 집중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사내벤처 프로그램 역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SK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내벤처 28개 팀이 분사해 9개 팀이 복귀하면서 32% 복귀율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누적 복귀율이 40~5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의 경우도 분사한 62개 팀 가운데 일부는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자본을 벤처 생태계로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상현·최선을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여름엔 시원하게 바꾸세요!

기간: 6.27.2025-7.29.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7월 내 설치

인기 혜택

쿠쿠로 환승하고, 보상 혜택에 사은품까지 챙기자!

일시불 최대 25% off

렌탈 계약시 최대 5개월 면제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240-595-2257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KN501SW, CP-FN601HA, CP-FN601S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AC-AA091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K2 흑표전차, 폴란드에 사상최대 9조 수출

(개별 계약)

이재명 정부 첫 대외방산 수출계약 1차 계약 3년만에 현대로템과 협상 폴란드가 요구했던 '개량형'도 포함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됐다.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다. 정부는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K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성비 및 빠른 납기일 달성에 '현지화' 요소까지 더해 유럽 업체들의 견제를

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 간 2차 계약 협상이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이뤄졌다. 수출 계약 규모는 양측 협의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67억 달러(약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추정대로라면 이는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다.

K2 2차 계약은 2022년 K2 180대, K9 212문, FA-50 48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의 1차 계약에 이어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협상은 3년 가까이 장기화됐다.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계약이 순차적으로 맺어지는 상황에도 K2 2차 계약 소식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차 계약은 한국 내 생산 완제품으로 구성된 반면 2차 계약은 폴란드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반영한 K2PL을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계약에선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나머지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폴란드 내 생산시설도 구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기적 방산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



2022년 9월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사전 행사로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시범을 선보이는 가운데 K2 흑표 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하는 모습. [사진 육군]

밝혔다.

또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유럽 내 개별 국가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 수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최근 나토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기로 약속하고, 자체적 방위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K방산의 시장 진출 기회도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방산업계에선 이번 K2 2차 계약이 K방산의 유럽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내 방산기업을 우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 유러피안'으로 불리는 재무장 정책은 2030년까지 5년간 8000억 유로(약 1200조원)를 투입해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리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EU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여유분을 각국에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선 총 무기 생산비용의 65%에 달하는 부품을 EU 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는 K방산을 비롯한 역외 방산 경쟁국에 대한 견제책으로도 볼 수 있어 현지화는 필수 과제다. 이근평 기자

K2 흑표는

- 승무원 3명
- 최고 속도 시속 70km(도로), 시속 50km(야지)
- 항속거리 450km
- 도하능력 4.1m(잠수도하)
- 엔진 1500마력
- 디젤 무장 120mm 55구경장 활강포 12.7mm 기관총 7.62mm 기관총

자료: 한국 아카데미(이미지)

는 셈이다.

방사청은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은 총괄 계약에 포함된 K2 전차 총 1000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7월 폴란드와 맺은 K2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천무 288문 등 4종 포괄계약의 실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K2 계약 대수만 보면 1차와 같지만,

추정 금액이 약 9조원으로 1차 계약(약 4조5000억원)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건 이런 간접적 효과까지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폴란드에 고위급 특별사절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라고

김치 14% 커피 12% 라면 7%... 6월 물가상승률 올들어 최고

(전년 동월 대비 2.2%)

오징어채 49% 차 21% 고추장 14%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에 물가 뛰어 달걀 6%, 41개월만에 상승률 최고 정부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총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웃돌았다. 상승률은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품목(458개) 가운데 일반 소비자가 자주 사는 144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5% 오르며 전달(2.3%)보다 오름 폭이 확대됐다.

가공식품이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4.6%)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73개 품목 중 62개가 올랐다. 오징어채(48.7%)와 양념소스(21.3%)·차(20.7%)·초콜릿(20.4%)·유산균(14.5%)·고추장(14.2%)·잼(12.0%)·시리얼(11.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 개에 2000원'이라고 록 잡은 라면(6.9%)은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른바 '커피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커피(12.4%), 배추 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은 김치(14.2%) 등도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 중에선 수산물이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7.4% 올랐다. 세부적으로 고등어(16.1%)·굴(12.7%)·조기(10.6%)·새우(10.5%)·김(10.4%) 등이 많이 뛰었다. 축산물을 보면 달걀



(6.0%)·닭고기(5.4%)·꿀(5.0%)·수입쇠고기(4.5%)·돼지고기(4.4%) 등 순이었다. 달걀의 경우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가격 담합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농산물 가운데선 마늘(24.9%)·호박(19.9%)·오이(19.1%)·미나리(15.8%)·가지(10.3%) 등이 크게 상승했다.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사태의 여파로 지난 4~5월 연속해서 떨어졌던 석유류가 지난달 상승 반전(0.3%)한 점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밀어 올렸다. 지난달 전가가스·수도는 3.1% 올랐다. 개인서비스를 보면 외식(3.1%)과 외식예외(3.5%) 모두 3%대 상승률을 보였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올해 들어 기조적인 소비자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월부터 3월까지 1%대 후반, 5월과 지난달 모두 2.0%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7월)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오름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을 지속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복잡한 유동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먹거리 수입 문턱을 더 낮추는 등 공급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과도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중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박정훈, 정당한 지시에 항명” 특검 이첩 전 의견서 낸 軍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법리에 관한 군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첩 보류 명령이 조사가 종결된 이후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므로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병대 내 번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30~60일가량 소요되는 반면 해병

사망사건은 10여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법적 검토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군검찰은 또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과 달리 “이 장

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박 대령 1심에서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023년 7월 30일 참모들의 적절한 지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 재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과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군검찰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배치되는 증거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 전 받은 전화 ‘02-800-7070’의 발신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의 국방비서관이 이첩 보류 전후로 어떤 경위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8차례 통화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VIP 격노설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한 상태에서 군검찰이 의견서까지 제출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조만간 박 대령 항소심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날 국방부로부터 박 대령 사건의 재판기록 등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는 특검에 과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이 맡을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는 7월 11일 전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이아미 기자

장마 2주간 장대비 1번뿐 “우리가 알던 장마 사라졌다”

(6월19일~7월2일)

마른장마, 올여름 극한폭염 예고

지난 5월 열린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장마의 정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설문 결과 학자들은 전통적 개념의 장마가 달라졌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우리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2일 기상청 장마특이 기상센터장인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장마가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 올여름만 해도 전형적인 장마가 아니다”며 “장마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올여름에도 장마가 이틀값을 못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빨리 시작했다. 제주의 장마 시작일은 지난달 12일, 중부와 남부는 19일이다. 하지만 장마 초기 시간당 60mm 가 넘는 폭우를 쏟아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은 첫 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19~20일에는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21일부터 1일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전부 합쳐도 13.1mm에 불과하다.

때문에 ‘장마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해 한반도 남쪽을 뒤덮으면서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폭풍 썩는 더위와 열대야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교과서는 장마를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오호츠크해 기단이 한반도에서 충돌해 장기간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학자 사이엔 이런 장마의 개념은 수명을 다했다는 의견이 많다. 동남아시아처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데다가, ‘N차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마 시기의 구분이 어



2일 폭염 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한 도로에 지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부산에는 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관측됐다.

려워졌기 때문이다.

장마 대신 ‘한국형 우기’로 재정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두 기단이 충돌해 장맛비가 내린다는 건 이론적으로 이미 깨졌다”면서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해 지표가 더 가열되면서 정체전선과 관련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강하게 쏟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마른 장마에 폭염은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날 경남 밀양은 한낮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았다. 7월 상순 기준으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다. 강원 강릉에서는 7월 첫날 밤부터 올해 첫 ‘초열대야(30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밤 최저기온(1일 오후 6시 1분~2일 9시)이 30.3도를 기록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

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7월 1일 누적 온열질환자가 50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90명) 대비 30.3% 많다.

문제는 앞으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말까지 장맛비 소식이 없는 상태다. 중부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더위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장마가 이대로 끝나면 2018년의 역대급 폭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중부지방에서는 7월 11일에 장마가 조기 종료되면서 극심한 폭염이 닥쳤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31일)가 역대 가장 많았다.

다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료선 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 정체전선이 수도권에서 200~300km 정도 떨어진 북한 지역에 형성돼 있다”면서 “필리핀 해상 열대 요란 같은 변수에 따라 기압계가 달라질 수 있어 장마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천권필·정종훈 기자

국민의힘 부산 기초의원들 ‘해수부 이전’ 반대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부결시키자 지역 주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찬

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제외한 10명 모두 건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이 건의안에는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 해사법원을 부산

으로 이전해 행정·산업·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

점 부산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을 공약했었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해수부 이전 등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운대구의회 ‘자유계시관’과 ‘의회에 바란다’ 두 곳에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불만 글만 4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대에 대한 비난 의견과 해당 구의원 사퇴 촉구에 관한 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30년 동안 국민의힘만 찍었는데 정신이 반짝 든다”며 “이재명 못 찍은 거 후회 중”이라고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소속 구의원 10명은 지난 1일 “국힘 의원 모두 해수부 이전에 찬성하며, 산업은행과 해수부가 동시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산 발전의 올바른 순서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사과성 성명을 냈다.

부산=이은지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맥아리’가 없다고요?

날씨가 더워지니 기운이 쭉 빠진다는 이가 많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에서 영 맥아리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곤 한다” “날씨가 너무 덥고 끈적해 기분이 처지고 매가리가 없다” 등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이처럼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맥아리가 없다’ 또는 ‘매가리가 없다’고 표현하곤 한다. 우리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매가리’가 틀린 표현이고, ‘맥아리’가 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바른 표현은 ‘매가리’다.

‘매가리’는 ‘맥’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맥’은 기운이나 힘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매가리가 없다’는 기운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 된다. “시합을 보고 나니 온몸에 매가리가 풀리고 잠이 왔다” “무거운 학원 가방을 어깨에 댄 어린이들 모두 매가리가 없어 보였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간혹 “어디선가 매가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에서와 같이 ‘매가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가리’가 ‘맥’으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사실을 알면 이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매가리’의 어원은 ‘맥(脈)+아리’이다. 원래는 ‘맥아리’라는 말로 쓰였으나 언중(言衆)이 ‘매가리’를 더 많이 사용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매가리’만 올라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참전 용사 박세준 추방이 남긴 과제



김경준 사회부 기자

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 정책 강화로 추방이 현실화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필요한 정책이다. 법의 원칙은 분명 존재해야 한다. 또 사회를 위협하는 조직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선듯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실수를 뉘우치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마저 추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다.

단속 목적이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 되어선 안 된다. 미국은 이제 ‘합리적이고 정교한 단속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전과 이력자’에 대한 개별적 위험도 평가 체계 도입이다. 범죄 성격과 동기, 복역 이후 삶의 궤적, 재범 여부,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면적 성격을 가진 체류권 재심사 제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범죄 이력과 정착 상태가 입증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추방 면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구제책이 아니라, 이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내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이다. 건설 현장, 식당 주방, 농장, 정비소 등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것이 정말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까.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존중하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박세준씨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치렀고, 이후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의 ‘무관용 원칙’에 의해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라 희생양만들기다.

앞으로 또 다른 박세준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숫자만 남는 단속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합리성과 정교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살아 있는 이민 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국의 가치다.

이아침에

고달픈 서류미비자들



양주희 수필가

5~6년 가게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관리인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고 주방기구 하나 가져가지 않고 가게를 닫은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게 작년 가을이었는데 지난 3월 갑자기 우리 가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두 명이 왔다. 나는 그들 목에 걸린 ICE 카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고개를 가우뚱하는 나에게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왔다고 자제히 설명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여기에 오래 살았고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랬더니 이웃한 중국 식당을 이야기하며 언제 문을 닫았고 누구누구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날벼락이 떨어

졌다. 불법체류자 단속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 앞에 ICE 직원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 넘어질 뻔했다. 죄도 없이 털털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뉴스에서 들던 사실을 현실로 접하고 나니 반세기가 지나도록 영주권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영주권이나 여권은 해외 여행 시나 필요할지 일상생활에서는 쳐다보지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어느 누가 말했단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오밤중에 소방차가 웅웅 소리를 내고 지나가도 자기 잡으러 오나 싶어 집에서 두 손잡고 있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용직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쥐구멍에서 숨을 쉬고 있다. 가게 앞을 지나 치던 많은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 서로 서로 연결되어 집 청소를 하거나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개나 고양이 돌봐주는 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멕시코 친구는 직원 중 영주권자가 없어 한밤중에 일을 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퇴근시킨다고 했다. 영주권이 없지만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이 자유로운 미국은 아닌 것 같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경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갑작스럽게 온 광복... 대한민국 위해, 김구는 통합 외쳤다

오래고 간절했던 국민의 염원은 너무나 갑자기 현실이 됐다. 그래서였을까. 모두 거리로 뛰쳐나올 만했건만, 증인과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조용했다고 한다. 누구는 '해방'이라고, 누구는 '독립'이라고 부르는 광복 당일의 풍경이었다.

광복은 극소수를 빼곤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라 할 일본 패전의 분위기는 1945년 들어 스멀스멀 번졌다. 일제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서 "전쟁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떠들었는데도 그랬다. "도쿄가 미군의 공습을 받아 불바다가 됐다(도쿄 대공습·45년 3월 9~10일)"는 얘기가 돌았다. 또한 공습에 대비해 국내에 방공호를 짓고 대피 연습까지 하는 것은 전황이 결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전쟁 상대방이 거의 코앞까지 들이닥치지 않고서야 대피 훈련을 할까닭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대체적인 인식은 "일본이 밀린다"는 정도이지, 금세 항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45년 8월 14일, 라디오를 통해 예고가 나왔다. "내일 천황이 중대한 발표를 하니 잘 들으라"는 것이었다. 내용은 극비였다. 일본에서도 그랬다. 불만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항복 선언을 저지할까 봐서였다.

이튿날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건 천황의 종전 선언이었다. 광복은 그렇게 급작스레 찾아왔다. 청취자 대부분은 라디오 방송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잡음이 심했고, 당시 기준으로도 예스러운 문장이었던 데다, 내용조차 이리저리 꼬아놨기 때문이다.

이튿날 후에야 전국 거리서 만세삼창

천황의 목소리가 나간 뒤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던 일본인이 다시 조서를 읽었고, 이어 조선인 방송원 이덕근이 우리말로 번역본을 낭독했다. 그 뒤에 해설 방송도 나갔다. 그제야 일본의 패전을 인식하게 됐다. 그래도 광복을 떠올리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과 우리가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약간 다른 얘기여서다. 극단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한 덩어리로 패전국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거리는 조용했다.

서울 시민들이 독립의 기쁨을 안고 거리로 쏟아져 나간 건 다음 날인 16일이었다. 전날 오후부터 "일본이 졌다" "소련군이 들어오고 우리는 독립된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진 결과였



1. 16일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소위 정치범 2000여 명이 석방돼 종로까지 행진했다.

2. 지방은 16일에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 뒤인 17일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태극기는 대부분 귀퉁이의 4개가 없이 빨강고 파란 태극 동그라미만 있었다. 급한 김에 집에 있던 일장기에 파란색을 덧칠해 들고 나온 것이었다.

3. 당시 총복 총주에 살던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저서 『나의 해방 전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16일 학교 조회에서 교장은 '전쟁이 끝났으니 방공호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엇그제까지 일제의 승전을 목청 돋워 얘기하던 교장은 갑자기 독립과 해방 같은 생소한 단어를 썼다. 17일이 돼서야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도 난생 처음이었다." 8월 15일은 패전 선언의 날, 16일은 서울 해방의 날, 17일은 전

1945년 8월 15일 '천황' 종전선언 '일본 패전, 곧 주권 회복' 인식 못해 그날엔 거리에 태극기 물결 안보여

일주일 채 안돼 한반도 분단 결정 남한에 온 미군, 치안·행정권 회수 잠시 되찾은 주권, 다시 미군정 손에

국 해방의 날이었던 셈이다.

극소수는 광복을 미리 알고 있었다.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항복을 결정했다. 소식은 이튿날 조선총독부에 알려졌다. 총독부 측은 몽양 여운형을 만나 치안권을 넘기는 것을 논의했다. 당시 총독부는 소련이 남한까지 들어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측해 사회주의 계열의 여운형을 택했다. 소련이 들어온 이후를 고려한, 일본 관리들의 '생존방안'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눈다는 결정이 8월 20일 마닐라에 파견돼 맥아더 사령관과 만났던 일본 정부 대표단에 통보됐다. 대표단은 22일 조선총독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국내에서는 8월 24일 매일신보와 다음 날 경성일보에 보도됐다.

생존책으로 여운형과 만났던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중장은 9월 1일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온 것은 불완전한 광복이었다.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 군정에 기대야 했기 때문이다. ■ 북한 곳곳에서는 소련군 환영 행사가 열렸다. ■ 남한에서는 9월 9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와 조선총독부 앞에 달린 일장기를 내리고 대신 ■ 성조기를 게양했다.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오키나와의 하지 미국 제25군단 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 "조선 안에는 평화와 질서를 파괴해 이득을 보려는 공산주의자가 많다"고 했다. 하지는 같은 날 "일본군은 미군이 책임을 인계할 때까지는 북위 38도 이남에서의 조선 치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1949년 법률안엔 광복절 아닌 독립기념일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가졌던 치안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회수했다. 잠시 되찾았던 주권은 그렇게 다시 우리 손을 떠났다. 결국 45년 8월 15일은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재탄생, 불완전한 광복이었다. '광복'이 뜻하는 주권 회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일각에서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49년 9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 초안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불완전한 광복을 맞은 이유는 힘이 없어서였다. 수많은 우국지사가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45년에 맞이한 광복(또는 해방)은 미국을 비롯해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힘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48년 8월 15일 정부가 세워졌다. 그렇다면 그때가 진정한 광복일까. 약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광복은 주권 회복뿐 아니라 '빛나는 역사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으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빛나는 역사'는 이념으로 갈라지 전의 한 몸이 아닐까. 통일 없이는 완전한 광복을 얘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광복절이 언제인가"라는 논란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45년 8월 15일을 '부분의 광복절', 미국의 군정에서 벗어난 48년 8월 15일을 '미완의 광복절', 장차 도래할 통일의 날을 '완성된 광복절'로 말이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한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렌더 지역]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설

평양 무인기 의혹 규명하되 국가 안보도 고려해야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제(1일)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무인기 침투가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가 무인기 2대를 잃어버리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외환(外患)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군통수권을 기본에 따라 휘두르며 무인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로 정말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박 의원의 발언은 자칫 특검에 수사 가이

드라인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와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다. 이런 의혹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지만, 군의 대북 작전 전체를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다. 지난해엔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풍선을 대대적으로 내려 보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우리도 일정 수준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각종 정보전략자산이 노출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사와 브리핑 과정에서 많은 군사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특검은 비상계엄과 무인기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외환죄 혐의 조건 게임 관련성 밝히되 무기밀 등 노출 말아야

이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각종 정보전략자산이 노출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도 노사 살바싸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젠 바꿀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살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이미 지났다. 올해(1만30원)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처음 제시했던 노동계는 1만1260원(12.3% 인상)으로 목표를 낮췄고, 동결에서 시작했던 경영계는 1만90원(0.8% 인상)까지 올렸다. 다소 좁혀지긴 했으나 4차 수정안까지 양측의 격차는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지만 비교 시점을 넓히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을(89.3%)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에 달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후유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저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는 노동자만 더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올해 월평균 수익(209만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원)과 큰 차이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과 음식점의 폐업률

이 높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 최근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원하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매년 인문과 경영계가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도 노사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마무리될 모양이다. 최저임금을 우리처럼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힘겨루기로 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최저임금위에는 위원이 27명이나 된다.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으며, 위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토론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전문가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경제·고용 지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 분할 인상해 인상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잠시 미룰 뿐이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문가가 경제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액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1986년 군사 독재 시절인 5공화국 때 도입했던 낡은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여의봉과 파초선의 경고

정호식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西遊記)』에는 두 개의 가공할 무기가 등장한다. 여의봉(如意棒)과 파초선(芭蕉扇). 중국의 대륙적 기풍 때문인지 설명이 어마어마하다.

우선 여의봉. 철봉의 양쪽 끝 금테에 적힌 무게가 1만3500근, 환산하면 8.1t이다. 귓속에 넣을 정도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손오공이 연기 전엔 동해 용왕이 바다를 떠받치는 철기둥으로 강과 바다의 깊이를 재는 척도였고, 거인의 신 반고(盤古)가 천지를 창조하며 땅을 다질 때도 썼다고 하니 원래 크기는 상상 불가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얻은 뒤 지상과 천상, 저승 삼계를 오가며 성을 부수고 앞길을 막는 어떤 요괴든 때려잡는다.

파초선은 파초 모양의 철부채. 한 번 부치면 사람을 8만4000리(약 3만3000km) 날려보내고, 태풍과 비를 부르는 무시무시한 무기다. 우마왕의 아내 철선공주(나찰녀)가 갖고 있던 것으로,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서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던 화염산 불길을 잡는 데 썼다. 무엇이란 부수고 날려버리는 여의봉과 파초선은 '권력의 상징'이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반복하는 그반대의 현실에서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됐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파초선이란 작은 부채를 든 마녀'를 권력자에 비유해 책임을 주문한 건 정곡을 찔렀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가 누군가는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여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 관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국군통수권을 입법부 장악을 위한 내란 도구로 활용하고도 내란 재판은 물론 특검 수사에서도 국민을 향한 '계몽령'이었다고 강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가 가장 가까운 반면교사다.

경계할 건 군통수권만이 아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체포·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와 기소, 재판권을 포함한 형사사법권도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에게 구속 여부가 생사여탈권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면 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금 검찰은 부패·경제 등 2개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권한만 남긴다는 게 골자다. 여당인 민주당의 목표치는 1949년 이래 76년간 존속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까지다.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고위직 검사들의 출사표가 검찰 폐지를 앞둔 엑소더스로 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졸속 개혁의 피해는 언제나 대

이 대통령 '파초선' 권력 책임 강조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게" 정교한 설계로 국민에게 이익 돼야

다수 국민이 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등 수사권 조정의 결과 일선 경찰에 사건이 몰려 코인·투자 등 사기, 보이콧, 마약 등 민생 범죄 수사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단순히 중수청이란 수사기관만 늘리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 속에 벌어진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내란 중북 수사처법 관심은 '중대 범죄'로 쏠려 서민 사건은 거들떠도 안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 검찰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속도전을 외치지만 또다시 졸속 개혁은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이란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려면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정교한 설계로 수사권 남용은 물론 중북 수사, 무책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

사회부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6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가정배달 제외)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마이니치신문, NHK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석사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구인 한식 주방장,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금~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크 서비스 해드립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L. 3rd - JUL. 10th, 2025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스페셜

시원한 물냉면, 정겨운 만두, 불맛 가득 바베큐까지!

독립기념일엔 K-BBQ가 답이다!
Korean BBQ is the Star of July 4th!



코리안 바베큐 양념(불고기/닭, 돼지 매운 불고기/닭돼지 갈비/갈비)
Korean BBQ Sauce (Bulgogi / Chicken or Pork Spicy Bulgogi / Chicken or Pork Kalbi / Kalbi)

2 EA for \$6.99
840 G

한국 바베큐 후에는 시원한 냉면이 국물!
Nothing beats cold naengmyeon after Korean BBQ!



모란각 냉면
(회 물/회 비빔/평양/열무 물/취 3인분)
Morangak Cold Noodles (Selected Varieties)

~~\$12.99~~ **\$7.99**
2.5~4.3 LB

냉면의 베프는 왕큰~왕교자 만두!
The best buddy for naengmyeon? Jumbo-sized dumplings!



비비고 왕교자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매운맛 돼지고기)
Bibigo King Gyoza (Beef / Pork / Chicken / Spicy Pork)

~~\$12.99~~ **\$6.99**
24~32 OZ

촉촉한 한입, 물만두의 매력으로 마무리!
Perfect ending? One juicy bite of mul-mandu!



백설 물만두
Bibigo Classic Mandu (Meat & Vegetables)

~~\$12.99~~ **\$6.99**
28 OZ

판매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arling, VA: 30 Ridgion Hill Dr., Starling, VA 20185
-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8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1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0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160 Dula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sville, MD: 6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10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3,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치솟는 HOA, 주택 매매에도 부담

회비 연 20% 오르는 곳도
셀러가 1년치까지도 부담
집값의 0.5%가 적정 수준

주택소유주조합(HOA) 회비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가주의 HOA 회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월평균 300~400달러 수준이며
5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
러진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절반
이상의 주택이 HOA에 속해 있으며, 평
균 회비는 월 360달러에 달한다. 일부
단지는 월 1000달러 이상의 회비를 부과
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HOA의 91%가 회비
를 올렸고, 이 중 19%는 HOA 회비를
11% 이상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난해 전국 중위 HOA 회비는 월 125달
러로, 전년 대비 14% 올랐다. 특히 플로
리다에서는 2021년 서프사이드 콘도 붐
과 사고 이후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
며 많은 커뮤니티에서 관리비가 두 배
이상 뛰었다.

HOA 회비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과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
승, 주택 노후화, 미래 수리비용을 대비
한 준비금 부족 때문이다.

정기적인 HOA 회비 외에도 예비비
가 부족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지붕
수리나 법률 분쟁 등 예기치 못한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 HOA는 특별 부과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건물
이 낡았거나 재정이 불안정한 HOA에서
는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기도 한
다.



주택소유주협회(HOA) 회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 구매자와 소유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단지에서는 연
20% 회비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
석한다. 가주법은 HOA 회비 인상에 일
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법적 한도 내
에서 매년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단지가
늘면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간접적 부담
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예비 주택 구매
자들은 HOA의 재정 상태와 회비 인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문가들은 HOA의 회계 보고서와 준비
금 상태, 특별분담금 계획 여부 등을 꼼
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OA는 주택 구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바이어들은 HOA가 없는 같은 가
격대의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거나
HOA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매달 HOA가
500달러를 넘기면 바이어들의 문의가
확연히 줄어든다”며 “집값은 적당해 보

여도 HOA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탈락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매매 과정에서 셀러가 일정 기간의
HOA 비용을 대신 내도록 협상하는 경
우도 있다. 바이어가 예산이 빠듯한 경
우, 클로징 계약의 일부로 셀러가 6개월
에서 1년 치 HOA 회비를 부담하는 식이
다. 클로징 비용을 셀러가 대신 부담하
는 방식과 비슷하다. 특히 HOA 회비가
비싸 매물이 장기간 시장에 있는 경우,
셀러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
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연간 HOA 회비가 전체
주택 가격의 0.5% 이하일 때를 적정선
으로 제시한다. 주택 가격이 70만 달러
일 경우, 연간 HOA 회비가 3500달러(월
약 290달러) 이하일 때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월 600달러 이상인 1%를 넘는
수준은 경계선으로 간주되며, 투자수
익률이나 거주 편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HOA 회비는 주택
가격처럼 고정자산이 아닌 매달 빠져나
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
에도 영향을 준다”며 “장기 거주 목적이
라면 추후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HOA 회비 인상과 관련해 투명성 부
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은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어났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회비가 올
라 불만이 크다”며 “감사보고서나 예산
안 공개가 부실한 협회도 많다”고 지적
한다.

최근 가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HOA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AB 21 법안
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서 좌절됐다. 이 법안은 가주 내 약 5만
개의 HOA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수준
으로 회계의 공개 의무화와 정기회의 녹
화, 소송 통지와 의제 공지 등 회계·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은 HOA 이사회 결정은 회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회원
은 법적 대응권을 갖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 패터슨 의원은
HOA가 외관 단속 등 사소한 규정을
이유로 자신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며
“(HOA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HOA는 번거로운 유지관리를
피하고 싶은 은퇴자나 소형 주택으로 이
사하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장점이 있
다. 전문적인 조경과 수영장·헬스장 같
은 커뮤니티 시설, 일상 관리의 간소화
등 HOA가 제공하는 혜택은 편리한 면
이 여전히 남아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널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수업료: \$295 (교재비: \$100)
신입생 할인입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관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p>\$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p>	<p>\$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p>	<p>\$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p>	<p>\$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p>	<p>\$1,075,000 포트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p>	<p>\$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로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p>
--	---	--	--	--	--

집값 올라 좋아했는데... '세금 시한폭탄' 되나

전국 주택가격 28년간 평균 260% 상승
1997년 개정 세법 비과세 한도 적용 시
가주 주택 소유주 62% 면세 한도 초과
장기 거주·급등 지역 과세 가능성 높아



주택 가치 급등으로 주택 판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한 주택가 전경. 박낙희 기자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액의 세금 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치가 취득 이후 급등한 경우 매각 시 지난 1997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의 약 3분의 1(34%)은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자산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까지의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상 초과한 이익에는 연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가주 주택 소유주 중 62.2%가 25만 달러에 육박하며, 50만 달러 이상도 30.8%에 달했다. 2030년에는 각각 84%, 61.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

측했다. NAR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은퇴자금, 자녀 학자금, 유산 등을 위한 자산”이라며 “하지만 1997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세금 규정에 따라 수십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막대한 자산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랫동안 동일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납부할 세금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은 한도를 넘어선 차익에만 적용된다. 개인 보고 시 판매 차익이 26만 달러라면 면세 한도인 25만 달러를 제외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남가주 지역에서는 어바인과 풀러턴 등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를 보유한 인기 지역일수록 ‘세금 폭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A씨 부부가 15년전 약 70만 달러에 구매

한 주택이 최근 200만 달러까지 올라 판매할 경우 차익에서 부부 공동 보고 면제한도 50만 달러를 제외한 8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고령자들의 주택 매각 또는 다운사이징 결정을 억제하고, 자녀 근처로의 이사나 요양 시설 입소 같은 노후 계획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큰 집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만 해도 복잡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5만~50만 달러의 면세 한도를 도입했

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28년째 그대로 유지돼왔다. 같은 기간 집값은 전국 평균 260% 넘게 상승했다.

일리노이대 연구진은 면세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현재 약 66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32만 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는 ‘더 많은 주택을 시장에(More Homes on the Market)’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면세 한도를 각각 개인 50만 달러와 부부 공동 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

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진 흥 회장은 “판매 시 차익에 에스스로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등 사고 팔 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공사 비용 및 리노베이션 비용도 사전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실거주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2년 이내에 판매하면 부부 공동 보고 혜택인 50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윤식 기자

고소득층 부동산, 저소득층 예금... 2030 '자산격차' 커진다

20~30대 고소득층은 공격적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의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이 중년층이 되면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연 소득 약 9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청년가구와 소득 하위 40%(약 3900만원 이하)의 금융자산 규모가 2019년 약 3.7배에서 지난해 4.7배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가 더 커진 배경으로는 우선 ‘돈 불리기’ 방식이 꼽힌다. 고소득층에선 예·적금 비율이 2019년 49.2%에서 지난해 48.8%로 꺾인 반면, 저소득층에선 같은 기간 48.4%에서 6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고소득

층에서는 주식·채권·펀드 투자 비율은 15.7%에서 28.6%로, 저소득층은 7.1%에서 16.6%로 늘었다.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에서 주식·채권을 보유한 가구 비중이 거의 2배 증가했는데, 주로 고소득층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기에 형성되는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방식의 격차는 향후 더 심각한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상승세도 2030 세대의 자산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선 20대 고소득층의 경우 금융 부채가 1% 증가할 때 부동산은 0.346% 늘었다. 저소득층은 0.169% 느는 데 그쳤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비싼 집이나 더 많

청년층 '부의 양극화'

소득 상위 20%는 공격적 '돈 불리기' 저소득층, 안전한 채테크 방식 선호

자산 차이 3.7배→4.7배로 벌어져

“빈곤한 청년들 위한 주거대책 필요”

은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득 축적 기간이 짧은 2030의 자산 격차가 5년새 더 벌어진 것은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부모 찬스’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최근에 ‘부모 찬스’는 금융자산에도 적용된다.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5명 중 1명(22%)은 자녀를 위해 코인 투자를 고려한다고 했다. 부모와 함께 살면 주거비·생활비 부담이 줄고, 부모가 투자에 밝으면 자식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이른바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동원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불리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을 호소한다. 직장생활 4년차 박모(29)씨는 “월급의 반을 가급적 저축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운용을 잘 못할 거 같아서 적금

에만 넣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동기로 ‘호기심’을 꼽은 비율은 20대 51%, 30대 48%로 절반에 달한다. 유행을 좇은 ‘포모(FOMO)’나 단순 호기심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면 투자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선 2030세대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신설 공약을 내놨다. 만기시점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다. 예·적금 중심의 안전한 투자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다. 임나연 위원은 “저소득 청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위원은 “전·월세 지원 대책이 저소득 청년에게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유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함,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 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 로케이션
수리중: Brand New LVP Floor,
전체 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영어) 환영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홉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은퇴 후 '고정수익 만들기' 최적화된 상품

구조화 채권

은퇴를 앞둔 많은 투자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다. 정기적인 소득원이 끊어진 이후에도 생활, 의료비, 여행과 여가 등 다양한 지출을 감당하려면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수익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지수형 연금, 배당주 투자, 리츠(REITs), 전통 채권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조화 채권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구조화 채권이란

구조화 채권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특정 조건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채권형 투자상품이다.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범위, 시장 조건, 만기 구조 등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수익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 이자(쿠폰) 지급 구조를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정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초자산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구조화 채권이 은퇴 후 소득 수단으로서 상당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상품의 설계

구조화 채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특정 주가지수가 일정 기간 설정된 가격 구간 내에서 움직이면 매 분기 고정된 쿠폰을 지급한다. 만약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쿠폰 지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는 설계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원금 보전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즉, 투자자는 자신의 리스크 수용도와 시장 전망에 따라 수익-손실 구조를 예측하고 투자



구조화 채권은 발행기관에 따라 원금보전 신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가지수 연동해 조건 충족하면 이자 지급
원금 보호하면서 일정 수준 소득 발생시켜
정교한 수익 설계할 수 있지만 구조 복잡해
자산시장 급변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정교한 소득 설계 수단이 될 수 있다.

▶ 금리환경과 세무계획

구조화 채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금리 환경이다. 전통 채권의 경우 수익률은 주로 이자와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고착되면 자본 차익의 기회가 줄고 쿠폰 수익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거나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의 경우, 수익이 일정하지 않거나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생애 후반의 재정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반

면 구조화 채권은 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해 조건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금리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화 채권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조건부 쿠폰이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해당 수익은 각 지급 시점이 속한 과세 연도에 분산되어 과세한다. 이는 수년 치 이자소득을 만기에 일시 수령하는 방식과 달리 세율 구간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고 세후 실질 수익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

▶ 전략적 자산관리 수단

구조화 채권은 단지 은퇴 후 소득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고액자산가에게는 보다 전략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소득 확보를 넘어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아래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일정한 손실 방어 장치를 포함한 동시에 일정한 수익 구간을 확보하는 방식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나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및 채권의 전통적 자산 배

분이 제한적 수익률에 머무는 상황에서 구조화 채권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의 일부 비중을 구조화 채권으로 대체하여 손실 리스크를 제한하면서도 목표 수익률을 정밀하게 설계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산군과 시장 조건에 따라 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의 세부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따라서 구조화 채권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자산 보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이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수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특정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명한 접근법

구조화 채권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수익이 줄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이해도 없이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원금보전에 대한 신뢰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화 채권을 은퇴 후 소득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설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구조화 채권은 전통 채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파생 구조를 통해 금리 변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예측 가능한 수익과 조건부 원금 보호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고착화라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구조화 채권은 보다 전략적이고 개인화된 은퇴 자산 운용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켄 최이피츠 자산관리 대표**

모기지 심사에 암호화폐 자산 인정

FHFA, 패니매·프레디맥에 지시 "전통 금융 인프라 통합 신호탄"

양대 국책 모기지 대출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규제하는 연방주택금융

청(FHFA)이 두 기관에 '단독주택 모기지 대출' 위험을 평가할 때 대출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FHFA는 지난 25일 윌리엄 풀테 국장이 서명한 이 지침을 공개했다고 로

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침에서 풀테 국장은 암호화폐처럼 추가적인 자산들을 고려하는 것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출자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들에게 지속

적인 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침은 두 기관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암호화폐를 명시하지 않았다.

두 기관은 은행이 승인하는 모기지 대출을 매입한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모기지 대출 보증 기관이다. 두 기관이 보증 여부를 심사할 때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점수 등 재산 상황을 평가하

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보유분도 재산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광고·구독 문의
Tel. 703-281-9660
① 워싱턴 중앙일보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1610 Westmoreland Cir, McLean, VA	SALE	\$1,999,900	맥클린 고품격 고급 주택, HVA 없음, 홈스위치 하키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침 구조, 맥클린 다운타운 도보 가능, 집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Rideau Cir,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1631 Cecile St, McLean, VA	UNDER CONTRACT	\$1,430,000	맥클린 고품격 고급 집이 있는 위치, 싱글홈, cul-de-sac, 오픈하우스 이를 보며주고 좋은 오피 받아 계약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ALE	\$1,315,000	여러 오피 경쟁 돌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5/20 세물먼트 완료
	2325 9th St, S, Arlington, VA	SALE	\$925,000	5/23 세물먼트 완료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ALE	\$501,000	복수 오피 밉아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오피 선택, 3주만에 세물먼트 완료 3/21 세물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패어팩스 지역 북-어름 나을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집 형태 (콘도, 타운, 싱글)	6-7월 말 입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진 나을 주택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7/28 입주가능 (RENT)	\$4,950 4베드+3.5 욕실+2차고+2차고 West Falls Church 특으로 잘서서 50, 안전하고 좋은 단지, 99% 미루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7/1 입주가능 (RENT)	\$5,800 4, 3.5 욕실, 맥클린 내 유망하게 수경장 있는 단지, 맥클린 다운타운, 교통/상권 편리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가능	\$3,500 로프트 콘도, 방 3, 화장실 2, 집 전체 리모넬링, 새 가전, 교통/상권 편리, 좋은 학교
1540 Hampton Hill Cir, McLean, VA	4년 (RENT)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1430 Lady Bird Dr, McLean, VA	2+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So Happy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1+1년 (RENT)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9690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무명 지면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현 다음 세입자, 무명 지면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제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개인이 종교를 갖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족이 신앙 선택 좌우으로 간다

독일 대학 '전승 역학' 연구

특히 어머니 역할 결정적
의견이 강한 가족 있으면
그대로 전승되는 경향도

‘한 개인이 종교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가족의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독일 뮌스터대학교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가족과 종교: 세대 간 전승의 역학’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논문에서 연구진은 독일과 핀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헝가리 5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가족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교의 세대 간 전승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가정을 대상으로 3세대에 걸친 인터뷰와 특정 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된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층 조사를 통해 연구진은 “가족이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기도나 찬양 같은 공동의 종교 활동을 실천하며 부모 모두가 같은 교파에 속해 있을 때 다음 세대에 종교가 전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점점 더 세속화되는 환경에서 부모 세대조차 비종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에게 종교적 신념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정이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는 교회

와 교인 공동체나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했다. 종교적 성찰과 토론, 창의적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종교 기관 역시 전승에 영향을 주었다.

서구 사회에서 교회 중심의 종교성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약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번 연구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가족 안팎에서 종교가 전승되는 구체적 경로를 밝히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유럽과 북미의 5개국은 대체로 기독교권 국가이며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세속화의 시기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1948년 이전 출생 세대부터 종교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1985~2003년생 중 절반은 부모가 이미 비종교인인 가정 출신이었다. 반면 서독의 경우, 같은 세대에서 약 70%가 본인과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종교에 소속되어 있어 종교 전승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서독 간 차이는 동독의 반종교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의 한 명인 올라프 뮐러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종교 전승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사회가 자유롭고 세속적으로 변하거나 비종교성이 보편화되면, 부모는 점점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종교적 정체성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 있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크리스텔 괴르너 교수는 “이 시기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종교 활동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종종 종교와 거리를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 방식이 점차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바뀌었다.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시했고 세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 교육 여부를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겼다. 종교 전승은 조부모까지 신앙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가정에서 특히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가 종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조부모만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연구는 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강한 태도를 가진 가족의 입장이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아버지가 특히 비종교적일 경우,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교회 출석이나 교회와의 유대 등 세대 간 종교적 실천은 단절되고 있지만, 사랑과 연대, 관용 같은 가치관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부모 세대는 이를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이런 가치를 더 이상 종교적 맥락이 아닌 일반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결론 지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점은 종교가 동일한 형태로 전승되지 않고, 변화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교회 예배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공공선, 영성을 경험했다면 자녀 세대는 이와 유사한 가치를 세속적 공간인 파티에서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뮌스터대학교의 부설 기관인 ‘종교와 정치 액션러스 클러스터’와 ‘종교와 현대성 연구소’(CRM)가 주도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원죄 탓 하느님 은혜 없이 구원 못 받아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성 아우구스티누스 2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과
필연적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필수 조건

아우구스티누스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지를 질문한다. 가령, 다이아몬드를 차지했다면 진정한 행복할지를 묻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한다. 첫째로, 그 대상 자체가 영원히 존재해야 하고, 둘째로, 다른 이가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다이아몬드는 깨질 수도 있고, 남이 훔쳐 갈 수도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답은 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즉, 내적인 스승인 신의 지혜와 진리, 로고스인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양심의 목소리에 따른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윤리적인 행위는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로부터 생긴다고 하면서 사랑의 윤리 실천을 강조한다.

즉, 신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자(一者)·정신(지성)·세계혼(영혼)은 ‘항유’의 자세로, 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동물·식물 그리고 무생물·질료는 사용하는 자세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라고 한다. 가치나 윤리의 왜곡을 피하고자, 사랑해야 할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사랑의 윤리학이라고 한다. 가령, 요즘은 반려견 가족들이 많은데 그들을 사람과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동물애호가인 필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필자는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인류를 신의 선택을 받은 자와 신의

버림을 받은 자로 나누었는데, 사람들의 공로와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나누었다고 한다.

성 바오로의 성서 구절에서, 악한 자는 사악하여서 신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라는 결론에도 출된 것은 아닌지 러셀은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는 결국,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국가란 신국에 속한 일부에 불과하므로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교회의 교리로 굳건히 자리잡는다. 그는 서로마 교회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중세 내내 제공했다. 그러나 동로마는 황제의 권력이 교회보다 강했으므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되레, 교회가 국가에 종속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학설을 주장했다. 또한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믿고, 원죄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덕을 행한다면 그것은 도덕을 행하려는 인간 자신의 노력 이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정통 그리스도 교도라면 덕의 보상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은혜) 없이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상에 반하는 주장이었고, 당시에 그의 사상은 이단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단죄되었다.

당시에 펠라기우스의 단죄 후에도 유사 펠라기우스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악화된 펠라기우스 교리를 지지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원후 529년에 오랑주 공의회에서 유사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단죄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호서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승 학군 싱글홈

\$1,9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 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토지이용 규제

주거·상업·공업으로 구분돼 구역별 개발범위 상이 부동산 거래 시 도시계획·건축법령 등 잘 살펴야

토지는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개발하려 할 때 다양한 법적·제도적 제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적·사적 토지이용 규제는 실무 현장에 큰 영향을 주며, 실질적인 이해와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우선, 공적 토지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입니다. 토지는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되고, 구역별로 개발 가능 행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도심이라도 상업용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층 주거용 개발로 제한된 구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법과 관련 규정은 건물의 용도, 규모, 구조를 결정하고, 도로·공원·학교 같은 도시 기반 시설도 개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제약이 됩니다.

사적 토지이용 규제는 부담·조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건축협정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층은 절대 상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은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적 제한은 등기에 명시된 경우 소유권 변경 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

지되고,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처럼 입주민 사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사적 제약은 반드시 현행 법과 공익질서가 우선시됩니다. 예를 들면 인종·종교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은 위법일 뿐 아니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도로·공원·학교 같은 공공용지는 도시 발전과 공공 안전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지정된 부지는 개발 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으며,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개발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공적 규제와 사적 제한이 충돌하는 상황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원칙은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 5층 개발이 가능하지만, 관리규약이 3층까지만 허용한다면 3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이러한 제한이 법령과 공익질서에 위배된다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거래를 진행할 때는 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법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다양한 문서와 제도,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인 조건만 믿지 말고, 이해관계자의 동의, 기부채납, 분묘기지권 등 실질적인 쟁점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에릭 민 드림부동산 부사장

하반기 전망

매물 부족 현상, 단기적 해결 어려워 경기 침체 심각할 시엔 하락 가능성

2025년도 절반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민 정책,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 이후 그동안 경제를 짓눌렀던 일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을 보인다. 특히 올 한해 최대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현재 추세라면 하반기부터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하며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매물 부족으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예상외로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집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줄었고, 그동안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바라며 기다리던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자율이 6% 중반에서 움직이지 않고, 관세 정책을 비롯해 새 행정부의 정책

에 불안을 느낀 바이어들이 관망세를 보이자, 5월 이후에는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물의 숫자도 조금씩 증가 추세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역시 상반기와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움직임,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 그리고 고용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많은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또한 맞춰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수 이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모기지 이자율 역시 영향을 보여 동반 하락한다면, 다시 매물의 부족 현상과 맞물려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

지금 현재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물 부족 현상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앞으로 연금했듯 너무 많은 셀러가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는 집을 팔고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일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고용 시장이 붕괴한다면,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간에 걸쳐 상승해 왔던 추세에서 하락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소송전... 갈등 본격화

질로 '공개 24시간 이내 등록'

부동산 중개업체 컴패스가 온라인 부동산 검색 플랫폼 질로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컴패스는 질로가 자신의 플랫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디지털 부동산 매물 공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은 질로가 최근 도입한 '24시간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된 주택 매물은 공개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질로에 게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질로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컴패스는 이 규정을 '질로 금지조항'이라 지칭하며 "질로 밖에서는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 모



든 매물을 질로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자사의 판매 수익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로는 컴패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정책은 공정성과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로 측은 "공개된 매물은 모든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플랫폼에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택 보급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CNN비즈니스는 컴패스의 이번 소송은 업계에서 매물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소송에서 컴패스가 승소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이 공유되는 방식과 플랫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현 투책 리빙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y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Realty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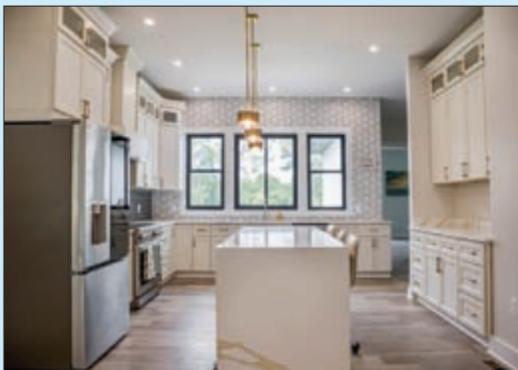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연장 120분 혈투 끝에 승리한 뒤 환호하는 알힐랄 선수(오른쪽)와 패배 뒤 주저 앉아 허탈해하는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다.

PGA투어 존디어 클래식 3일 개막

임성재·김주형·김시우 출격 장타자 포트기터 2연승 도전

유럽에서 굵직한 일정을 앞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존디어 클래식(총상금 840만달러)으로 경쟁을 이어간다. 존디어 클래식은 3일부터 나흘간 일리노이주 실베스의 TPC 디어던(파 71·7289야드)에서 펼쳐진다.

플레이오프 시작을 한 달 정도 남겨 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PGA 투어는 이 대회 이후 10일부터 스코틀랜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17일부터는 북아일랜드에서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엔 톱 랭커들은 대거 결장한다. 출전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17위의 벤 그리핀(미국)이고, 그다음이 25위인 임성재(사진)다.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도 그리핀(6위) 다음 두 번째로 높은 2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5개 대회에서 두 차례 킷 탈락하는 등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임성재로선 유럽에서 열릴 대회를 앞두고 반등 흐름을 만들 기회가 있다.

임성재는 2주 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61위에 그쳤고, 지난주 로켓 클래식은 건너뛴 뒤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선 마지막 날 7타를 줄여 공동 12위에 오른 바 있다. PGA 투어가 꼽은 올해 파워 랭킹에선 그리핀이 1위에 오른 가운데 임성재는 12위로 평가됐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



과 김시우도 함께 출전한다. 로켓 클래식에서 킷 탈락한 김주형, 84위에 머문 김시우도 이번 대회에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한 처지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에서 김시우는 45위, 김주형은 90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데이비스 톰프슨(미국)이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지난주 로켓 클래식에서 5차 연장전 끝에 PGA 투어 첫 우승을 이룬 올드리치 포트기터(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세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만 20세로 1983년 이후 PGA 투어 역대 7번째 어린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린 포트기터는 평균 드라이버 거리 327.4야드로 투어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 유명 선수로는 제이슨 데이(호주), 리키 파울러, 맥스 호마(이상 미국)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맨시티 돌려보낸 사우디 알힐랄

클럽월드컵 16강전 4-3 승리 칸셀루 등 스타들 영입 효과 브라질 플루미넨시와 8강전

이로써 알힐랄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클럽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번 대회엔 알힐랄과 울산 HD(한국), 우라와 레드(일본), 아인인(아랍에미리트) 등 AFC 소속 4개 클럽이 참가했다. 알힐랄은 조별리그 H조에서 1승2무를 기록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알힐랄은 막대한 오일달러를 쏟아부어 중앙 칸셀루(31·전 바르셀로나), 후벵 네베스(28·전 울버햄프턴), 칼리두 콜리발리(34·전 첼시), 야신 부누(34·전 세비야) 등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 공수에 두루 포진시켰다. 시모네 인자기(49) 알힐랄 감독 역시 유럽에서 이름을 날린 지도자다. 인자기 감독은

지난 5일 알힐랄 사령탑에 부임했는데, 그 직전에는 인터 밀란(이탈리아)을 맡아 팀을 2024~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쉐럿의 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른 16강전에서는 플루미넨시(브라질)가 인터 밀란을 2-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플루미넨시는 존 아리아스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후반 종료 직전 에르클리스의 추가골로 승리를 완성했다. 알힐랄과 플루미넨시는 오는 4일 준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한다.

파주영 기자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거함' 맨체스터시티(맨시티·잉글랜드)를 침몰시키고 8강에 진출했다. 알힐랄은 지난달 30일 올랜도의 캠프 월드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연장 120분 혈투 끝에 맨시티를 4-3으로 꺾었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내년 월드컵 결승, 오전 9시 개최를”

미국 폭염에 전문가 우려

미국을 강타하는 폭염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오전 9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영국 BBC에 따르면 극한 온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영국 포츠머스대의 마이크 티핀 교수는 월드컵 결승이라도 아침 시간대로 재편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025 FIFA 클럽 월드컵에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폭염이 골칫거리다.

특히 열돔 현상 등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30도 중반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그런데도 유럽의 '황금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 일부 경기의 킥오프 시간은 정오나 오후 3시로 배정됐다.

이번 클럽 월드컵 전체 63경기 중 35경기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 이전에 편성됐다.

아직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시간

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BC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대 경기는 현지 시간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유럽 시청자와 방송사, 광고주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처사다.

티핀 교수는 “열생리학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더 시원한 시간대로 킥오프 시간을 옮겨야 한다”며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과 관중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디오픈 복귀 3년만에 힘겹게 출전권

올해 US오픈 26년 연속 출전 행진이 무산됐던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사진)가 3년 만에 디오픈에 나선다.

가르시아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리는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고 골프위크가 1일 전했다.

가르시아는 디오픈을 주최하는 R&A가 이번에 새로 만든 '6월 말 기준 LIV 골프 포인트 랭킹 상위 5명' 카테고리 출전권을 받았다.

가르시아는 호아킨 니만(칠레), 브라이슨 디샬보(미국), 욘 람(스페인), 패트릭 리드(미국)에 이어 LIV 골프 포인트 랭킹 5위에 턱걸이했다.

LIV 골프로 옮긴 뒤 가르시아는 세계랭킹이 빠르게 추락한 데다 경기력마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17년 우승으로 평생 출전권을 지닌 마스터스를 제외하고는 예선을 치르는 등 출전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플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0202년 부회 인증마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polish off (something); (음식 음료수를) 말끔히 비우다

(Roommates Mario and Tony are cleaning up their apartment after having a party~)

(룸메이트인 마리오와 토니가 파티가 끝난 뒤 아파트를 청소하면서~)

Mario: This was a great party.
마리오: 파티 정말 신났어.
Tony: Yes it sure was.
토니: 응. 진짜 재미있었어.
Mario: Everyone had a great time.
마리오: 전부 신나게 놀았어.
Tony: And everyone we invited showed up.
토니: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 사람들 전부 다왔어.
Mario: That's right. There were no no shows.

마리오: 맞아. 안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
Tony: They polished off all the beer. There's no more.
토니: 맥주도 싹 다 마셨어. 하나도 안 남았어.
Mario: Not really.
마리오: 꼭 그렇진 않아.
Tony: What do you mean.
토니: 무슨 말이야.
Mario: I stashed away two bottles for us in the

refrigerator.
마리오: 우리 마시려고 냉장고에 두 병 숨겨놨어.
Tony: Thanks. Good idea.
토니: 고마워. 아이디어 좋았어.

▶ no shows: 불참자들
"Fourteen students took the test and there was one no show." (14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고 한 명이 결석했어요.)
▶ stash away (something): 숨겨두다. 따로 떼어놓다.
"He stashed away his money in his mattress." (그는 매트리스에 돈을 숨겨 놓았다.)

기억할만한 표현

▶ show up: 나타나다.
"Everyone showed up for the meeting."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날말퀴즈

Grid for the word search puzzle with numbers 1-29.

가로열쇠

(1)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중□□ (4)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 나는 옷을 ~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7) 좋은 빛자리나 집터 (8) 석영(石英)으로 된 매우 단단한 재질의 돌. 무색의 순수한 것은 수정이라고 하죠. 아무지고 단단한 사람 (9) 농약대에서 뿜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11) 흰 종이의 낱장. 맞들면 낫조 (12) 약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 이곳으로 간다고 하죠 (13) 작고 둥글둥글한 돌 (15) 칼슘·마그네슘·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는 물. 미네랄워터 (16) 방고래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그는 물을 끓이려고 ~에 솔을 얹고 불을 지폈다 (18)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21) 잘못된 사람을 단련한다는 뜻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단체 ~을 받다 (22) 물고기의 호흡 기관 (24) 축하할 만한 기쁜 일 (25)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26) 상점들이 줄 늘어서 있는 거리 (28)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치는 박수. 그의 연설이 끝남과 동시에 ~가 이어졌다 (29) 늑이 아니라고 오래 살

세로열쇠

(1)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아직 때가 이른. □기□□ (2)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새벽. 창 밖에는 어느덧 ~이 밝아 오고 있었다 (3)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냄. 매우 용감함 (4) 자동차를 이곳에 세워 두죠 (5) 집체와 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돌층계. 옥색 고무신 한 켤레가 ~에 놓여 있다 (6) 가늘프고 고운 여자의 손. 낙랑 공주의 ~를 뿌리치고 몰아서 입산할 때에, 대장부의 흉리가 어땀했을까? (정비석) (10) 힘이나 세력이 줄어서 약함 (12) 더할 나위 없이 천함. 매우 흠함 (14)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15) 전등을 켜고 난방을 하는 데 드는 비용 (16) 여러 가지가 오밀조밀 어우러 예쁜 모양. 잔재미가 있고 즐거운 모양. ~한 신선살림 (17) 혼인할 남녀의 부부로서의 길흉을 예측하는 점 (19)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 (20)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22) 한강의 옛 이름. 광개토태왕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 아닌 게 아니라 과연 (25) 공중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 (27)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스도쿠

9x9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Completed 9x9 Sudoku grid.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Subscription form for Washington Korea Daily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info.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0 years Celebrating Since 1982 H MART

VA/MD WEEKLY SALE JULY 3rd - JULY 10th, 2025

WISHING YOU A GREAT 4TH OF JULY!

Find everything you need and more for your holiday.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바베큐 파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VA/ H MART MD

Jumbo Pomegranate 석류(정보) LB **\$2.99**

Pure Sweetness Melon 퓨어 스윗니스 멜론 LB **\$1.29**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LB/PKG **\$5.99**

CHAMPAGNE Honey Mango 허니 망고 16 CT/BOX **\$9.99**

White Nectarine 백천도 복숭아 LB **\$2.49**

ZESPRI Gold Kiwi 제스프리 골드 키위 BOX **\$24.99**

White Donut Peach 도넛 복숭아 LB **\$2.49**

Jumbo Seedless Watermelon 정보 씨없는 수박 EA **\$4.99**

Baby Napa/Baby Radish/Young Radish 풋배추/젊은총각무 BUN **\$3.19** FOR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Kent Mango 8's 켄트 망고 BOX **\$6.99**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0.99**

H MART SMART CARD ONLY 파 Green Onion BUN **\$2** FOR

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 **\$2** FOR

Korean Pepper 풋 고추 LB **\$2.49**

Babybella Mushroom 베이벨라 버섯 8 OZ/PKG **\$1.29**

Korean Cucumber 한국 오이 LB **\$2.49**

Bagged Idaho Potato 백 감자 5 LB/BAG **\$1.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s 양념 LA갈비 LA STYLE LB **\$12.99**

Fresh Bone-in Skin-on Pork Rib Belly Chuk 수육용 생 갈비 삼겹살 LB **\$4.99**

Fresh Chicken Wings 자른 닭날개 FAMILY PACK PARTY CUT LB **\$2.59**

Frozen Thinly Sliced Beef Ribeye Roll for Bulgogi 냉동 등심불고기 6-8 UP LB **\$8.59**

Fresh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생 삼겹살 6MM LB **\$4.99**

Marinated Thinly Sliced Bonless Pork Shoulder Butt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3.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9.99**

Fresh Scallop 조개 10-20'S LB **\$14.99**

Frozen Mackerel Pike 냉동 꽁치 90-110 SIZE LB **\$3.99**

Fresh Salmon 스테이크 LB **\$6.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 SIZE/LB **\$4.99**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FROZEN 12 UP SIZE LB **\$15.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100% California Grown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9.99**

CHUNGJUNGONE O'Food Sunchang Gochujang 청정원 오뚜기 순창 100% 현지 태양초 칠고추장 6.6 LB **\$12.99**

DR CHUNG'S FOOD Rich Soy Soup + LOCK & LOCK Container 정식품 진한 콩국물 + 락앤락 용기 기획상품 950 mL X 4 EA/PKG **\$9.99**

Jumbo Washington Red Cherry 워싱턴 체리 LB **\$1.99**

JAYEONONE Frozen Fruit Cups+Ice Tea Sweet Peach 자연원 망고/피인애플 컵 "아망초" "피파초" MANGO/PINEAPPLE 5.29 OZ + 7.78 FL OZ **\$4.99**

DONGSUH Maxim Coffee Mix 동서 커피 믹스 ORIGINAL/MOCHA GOLD MILD 2.6 LB X 100 STICKS/BOX **\$10.99**

HELLO HOME! SMILE, YOU'RE HOME!

Toothbrush Cup 양치컵 APEACH/SKECH - EA **\$3.99**

Apeach Multi Purpose Container 어피치 욕실 다용도통 **\$5.99**

Women's Short Socks 여성 덧신 BLACK/GREY/OATMEAL/YELLOW PAIR **\$1.49**

HELLO Standing Broom Set 헬로 스탠딩 빗자루 + 쓰레받기 세트 DARK GREY/SET **\$7.99**

HELLO Foldable Broom Set 헬로 접이식 빗자루 + 쓰레받기 세트 BLUE/SET **\$9.99**

CIMLAX Ingredient Container with Sushi Roll 씨탈렉스 김밥재료 보관용기 W. 김밥말이 롤러 PEACH CORAL/GREEN EA **\$3.99**

TSURU MAI California's Premier Brown Rice 쓰루마이 현미 15 LB **\$11.99**

OTOKI Jin Ramyun Noodles 오투키 진라면 컵라면(소프) MILD/SPICY - 2.29 OZ X 6 EA/BOX **\$6.99**

SAMYANG Buldak Instant Noodles 삼양 불닭볶음면 SELECTED VARIETIES/4.4-4.94 OZ X 5 EA/PKG **\$6.99**

CHUNGJUNGONE O'Food Mild Samjang 청정원 오뚜기 순창 고소한 참기름 1.1 LB **\$3.49**

OTTOGI Premium Roasted Sesame Oil 오투기 고소한 참기름 10.82 FL OZ **\$7.99**

HAIO Korean BBQ Sauce 해오름 BBQ 양념 SELECTED VARIETIES/1.85 LB **\$3.99**

AYAM YOOK Luncheon Meat 아얌유크 런치미트 12 OZ **\$2.49**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중력 다목적용) 5.5 LB **\$3.99**

OTOKI Jin Ramyun Noodles 오투키 진라면 컵라면(소프) MILD/SPICY - 2.29 OZ X 6 EA/BOX **\$6.99**

SAMYANG Buldak Instant Noodles 삼양 불닭볶음면 SELECTED VARIETIES/4.4-4.94 OZ X 5 EA/PKG **\$6.99**

CHUNGJUNGONE O'Food Mild Samjang 청정원 오뚜기 순창 고소한 참기름 1.1 LB **\$3.49**

OTTOGI Premium Roasted Sesame Oil 오투기 고소한 참기름 10.82 FL OZ **\$7.99**

HAIO Korean BBQ Sauce 해오름 BBQ 양념 SELECTED VARIETIES/1.85 LB **\$3.99**

AYAM YOOK Luncheon Meat 아얌유크 런치미트 12 OZ **\$2.49**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중력 다목적용) 5.5 LB **\$3.99**

CHORIP Dried Pollack 초립종이 황태채 FROZEN 8 OZ **\$9.99**

HAIO Seasoned Fried Bean Curd 해오름 누구나 유부초밥박사 12.6 OZ **\$2.99**

PULMUONE Korean Cold Noodles 풀무원 물/비냉 냉면/미국수/폴면/슬림누들 SELECTED VARIETIES/13.5-34.9 OZ **\$4.99**

HAIOREUM Dumplings 해오름 손만두/군만두 FROZEN/SELECTED VARIETIES/2.65 LB **\$4.99**

PULMUONE Plaintspired Fried Rice 풀무원 식물성 볶음밥(불고기/계란) 마루찬 야끼소바 FROZEN/16.93 OZ **\$5.99**

MARUCHAN's Nama Yaki-Soba 마루찬 야끼소바 FROZEN/16.93 OZ **\$5.99**

NANGMAN BROTHER Korean Rice Cakes 남만부라더 떡볶이 FROZEN/SELECTED VARIETIES 21.16-32.25 OZ **\$3.99**

HAIO Imitation Crab Meat 해오름 상심 게맛살 FROZEN/2.2 LB **\$5.99**

OTTOGI Stone Baked Pizza 오투기 고구마/질릭고르곤졸라 피자 FROZEN/SWEET POTATO/GARLIC GORGONZOLA CHEESE CRUST - 0.88-1 LB **\$7.99**

TONGTONGBAY Dried Squid 통통배 오징어포 GRILLED/ROASTED/SPICY - 1.5 OZ **\$3.49**

YGSP Bung-Eo Ppang 용궁에서 온 봉어빵(슈크림/딸링) FROZEN/CUSTARD CREAM/RED BEAN 2.31 LB(15 EA/PKG) **\$9.99**

CROWN Snacks 크라운 스낵 SELECTED VARIETIES/5.22-8.64 OZ **\$2.99**

CROWN Couque D'asse Snacks 크라운 쿠크다스 스낵 WHITE/COFFEE - 10.19 OZ **\$3.99**

DR CHUNG'S FOOD Vegemil Soy Milk 정식품 검은콩과 검은참깨/달콤한 베지밀 비 BLACK BEAN & BLACK SESAME/SWEET B 6.4 FL OZ 2.24 EA/BOX **\$12.99**

HORIZON Organic Milk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 WHOLE/FAT FREE/LOW FAT 1% REDUCED/FAT 2% 64 FL OZ **\$5.99**

HAIO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주스 SELECTED VARIETIES 1.5 L **\$1.99**

ENJOY AMERICA'S TOBAGI FAVORITE KIMCHI!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HAITAI'S ICE CREAM COLLECTIONS!

JULY 4TH - JULY 10TH, 2025

NEW! BRAVO, Pollapop, Pollapop

ARTBOX GRAND OPENING

JULY 11th, 2025

H MART ELLICOTT CITY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North Ridg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이 광고는 오직 VA/MD 위치에 한정됩니다. 편집 과정에서, 여기에는 오타/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마다 상품과 가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든 H Mart 위치에서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7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매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어 아이들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력자
-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0명
-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하실분 0명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시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트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 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렌트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홀 이중방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홀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렌트, 넓은 이중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홀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달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상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Training Program Specialist (Design): Establish corporate standards for design concepts; Perform market research to gather information to create competitive designs; Develop training program & guidelines; Train managements, employees, and contractors about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design concepts to products; Monitor and assess the effect of each design concept. 40 hrs/week. Master's degree in a design fiel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Wisdom Design LLC at 3159 Draper Dr #1, Fairfax, VA 22031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무직 Processing Dept.
- 서류 및 데이터 처리
- 기본 문서작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 내부 지원 업무
- 책임감있고 성실한 분 환영
풀타임/사무직 경력자 우대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u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트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 신선 셀링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풀/파트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인태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첼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용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 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버크타운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청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 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집,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 & 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팅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
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
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료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서브 리스 합니다. 방1, 풀베스 1, 셰어
키친, 파킹티켓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비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역 타운홈 방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첼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료, 취사, 인터
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도, 파킹 즉시 입주 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703-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1. 센터빌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센터빌 싱글홈 \$915,000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5, Gourmet Kitchen, 워크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 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703-813-8949

Stafford 싱글하우스 \$69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라,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코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이츠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자붕, 에어컨 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치킨 가게 양도 (한국 귀국)
1920 sf 현재 영업중 (알렌사드리아 물) 주방 일체, 치킨 가게와 다른 업종도 가능 재정 상태 양호 하신분
703-338-1636 / 646-415-2347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모도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밤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드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수인/상태 양호 \$6,000
213-767-2381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 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 것 팝니다. 우표 수집 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 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건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외도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폴딩,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러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한,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방지/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엄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 &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SUMMER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 탑재

고급 천연가죽 시트

10인치 터치 태블릿 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척추 라인 마사지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컴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넛 우드 패턴' 디자인!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재미!

바디프랜드만의 새로운 기술

Medical PHANTOM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된다!

-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 퇴행성 척추증 치료를 위한 견인!

이런 분들께 팬텀 메디컬 케어를 추천합니다!

- 목과 허리 근육통 완화를 원하시는 분
- 목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퇴행성 척추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 거치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월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중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창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기를 채우고 따르세요~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받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둘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헨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6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장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699,9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